



7개국 137대 국산항공기 수출

(2016년 7월 누적 수출량)

KT-1, T-50의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이라크, 필리핀, 태국, 세네갈 수출로 국내 항공산업의 수출산업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미국 T-X 시장 진출과 KF-X의 성공적인 개발 및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습니다.



Fly Together

2016 OCTOBER Vol.202

www.koreaaero.com



Monthly Issue

항우연과 차세대중형위성
기술 이전 계약 체결

KAI Family

이름다운 추억을 담아낸
가족 앨범 DIY

kaiwebzine.com

반응형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PC나 스마트폰에
위의 주소를 넣으면 KAI 사보로 연결됩니다.

SYNERGY OF KAI

화합과 열정을 바탕으로
무한대의 시너지를 창출하다

항우연과 차세대중형위성 기술 이전 계약 체결



9월 23일 우리 회사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차세대중형위성1호' 시스템 및 본체 개발기술에 대한 기술 실시 계약식을 열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차세대중형위성사업은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의 핵심사업으로, 500kg급 정밀지상관측(흑백 0.5m급, 칼라 2.0m급) 위성 12기를 2025년까지 개발·발사할 계획이다. 현재 1, 2호기를 개발하는 단계 사업을 진행 중으로 1호기는 항우연 주관 항우연-KAI 공동설계팀이 개발 중에 있으며, 2호기는 우리 회사 주관으로 항우연은 감리, 기술 지원 탑재체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계약식에서 하성용 사장은 “항우연의 기술을 성실히 이전받아 차세대중형위성 2호의 성공적 개발은 물론 국내 우주산업 발전 및 인프라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항우연의 조광래 원장은 “국가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하여 우주 기술 상업화를 앞당기고 국내 우주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위성 기술을 축적해온 항우연이 위성 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함으로써 우주 전문기업 양성과 수출 산업화를 통한 국내 우주산업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우리 회사는 국가 핵심 우주사업인 '한국형발사체 총조립' 사업과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의 주관 업체로서,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항공우주 분야 우주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KAI 百科

- 04 CEO 동정 & News Focus**
CEO, 제25회 다산경영상 전문경영인 부문
수상 外
 - 08 Part 1 APT 특집②**
APT사업 경쟁 기종 분석
 - 12 Part 2 소통의 기업문화**
KAI 나눔봉사단 재능분과 소개+추석 나눔
활동



KAI Magazine

- 16 World Today**
제3세계의 핵폭풍, 파키스탄
 - 20 기업문화 시리즈⑩**
더할수록 배가 되는 시너지의 힘
 - 22 Global Story**
장수 기업, 바스프
 - 24 KAI의 달인**
기체품질팀 부품검사직 최성용 수석기술원
 - 26 Fly News**
러시아 스텔스기 T-50 PAK FA,
2017년 3분기 실전화



KAI 행복소통지

- 28 KAI Family
이름다운 추억을 담아낸 가족 앨범 DIY
 - 32 이야기 한마당
 - ① 청탁금지법 시행, KAI 글로벌 윤리기업으로 우뚝 선다
 - ② 2016년 3/4분기 조직 활성화 모범 사례
 - ③ 오늘은 내가 훌 셰피 디너애려



42 생생현장탐방

- 46 만나봅시다
방송인 박경림

49 마음을 전해요
돌로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

발행인 하성용

박해처 하구하고온즈사언(주) 기업문화팀

담당자 배화윤 차장 구보란 과장(055-851-1609)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골단1로 78

제작대행 디자인시행(02-324-6852)

이색 산학이색(02-850-0850)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접두어인 ISBN과
리실증오장을 준수합니다. (Fly Together)에 실린 외부 필자와
원고는 KA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KA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
여서 본 업무와 관련 있어 저작권에 노출되는 행위를 금합니다.

구성원이 함께 공동의 목적과 책임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발휘할 때 조직은 최상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니의 에너지가 또 다른 에너지와 만나면 시너지가 되듯, 힘을 치합하고 머리를 맞대면 우리가 못 할 일은 없습니다. 최첨단 항공우주업체를 향한 성장, Global Top 5 달성을 위해 KAI는 열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무한대의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CEO

MOVEMENTS & NEWS FOCUS

10

VOL.202
OCTOBER 2016

CEO, 제25회 다산경영상 전문경영인 부문 수상

하성용 사장이 제25회 다산경영상 전문경영인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경제신문이 1992년부터 매년 시상하는 다산경영상은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상을 기리기 위해 기업인에게 주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하성용 사장은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한 것은 물론,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한 본보기로 평가되어 이번 수상을 하게 되었다. 9월 28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 열린 시상식에서 하성용 사장은 "기업인들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다산경영상을 수상해 영광"이라며 "내년 말 결정될 예정인 미국 고등훈련기 수출도 반드시 성사시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대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6년 을지연습 종합훈련(미사일 피폭) 실시

지난 8월 24일 우리 회사와 경상남도, 시천시가 함께 2016년 을지연습 도(道) 지정 실제훈련인 '미사일 공격에 따른 복합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하성용 사장과 흥준표 도지사를 비롯해 제39보병사단장, 경남지방경찰청장, 사천시장,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관 기관 합동으로 진행된 훈련은 개요 설명에 이어 화학탄을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 피폭에 따른 '오염 지역 화생방 제독훈련', 군·경 합동 '초동 조치훈련' 등이 실시되었으며, 국민 체감형 훈련으로 화생방 장비 전시와 방독면 착용법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본 훈련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대처 능력 향상 및 방호기능 강화를 통해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관·군·경 협조체계 구축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2016년 하반기 협력업체 경영설명회 개최

8월 30일, 하성용 사장과 우리 회사 임직원 17명, 제조분과 22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협력업체 경영설명회'가 열렸다. KAI 에비에이션센터 스카이홀에서 개최된 경영설명회는 하성용 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KAI의 민수사업 현황 및 동반성장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더불어 16년 정기평가 우수업체 및 상반기 혁신활동 우수업체에 대한 사상이 있었다. 이날 하성용 사장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 확대와 민수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협력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미 교육 사령관 방문

지난 9월 7일 미 교육 사령관 Darryl L. Roberson 중장 외 13명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하성용 사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 미 교육 사령관 일행은 APT사업 관련하여 항공기동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격납고에서 APT사업 시범기 견학을 실시했다. 다음날에는 예천 16비에서 TA-50 시범기 탑승을 통해 항공기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Roberson 중장은 "KAI에서 보여주신 따뜻한 환영에 매우 감사하며, 미 공군 교육 사령부에도 이를 전할 예정"이라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임시주주총회 개최

우리 회사는 9월 9일 에비에이션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하성용 사장 주관으로 최대 주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대규모 상장법인으로서 3명 이상의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현재 사외 이사인 조유행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는 안건이 승인되었다.



FA-50PH 형식인증서(TC) 및 FA-50 무장운용 감항확인서(SOA) 획득

지난 8월 18일 방위사업청에서 개최된 제32회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결과에 의거, FA-50PH 형식인증서(TC) 및 FA-50 무장운용 감항확인서(SOA)가 최종 발급되었다. 이로써 FA-50PH는 적기 납품을 위한 생산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FA-50은 소요군의 요구에 맞는 폭넓은 무장 운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구매본부, 업무 사례 발표회 실시

구매본부가 8월 25일과 26일 2회에 걸쳐 '2016년 업무 사례 발표회'를 진행했다.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4회를 맞은 업무 사례 발표회는 업무 관련 실패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현재까지 총 339건의 실패/성공 사례가 취합되어 업무에 활용 중이며, 간접적으로 선후배의 다양한 사례를 경험할 수 있어 사원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구매본부의 행사 중 하나다. 구매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업무 사례 발표를 통해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FA-50 무장능력 확장 전사 혁신과제 Kick-Off

8월 31일 2016년 하반기 전사 혁신과제인 'FA-50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장능력 확장'의 Kick-off가 열렸다. 혁신과제는 고정익개발본부장을 챔피언으로, 수출사업운영 실장을 프로세스오너로 한 T/F를 구성, 영업 분야와 개발 분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잠재 국가들이 기존 FA-50 대비, 향상된 무장 능력을 요구함에 따라 시장 및 요구 분석을 통한 최적의 무장형상을 확정하고, 비용 및 일정의 최적화를 통해 단계별 성능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FA-50 무장운용 추가영역 확장사업 완료

우리 회사가 8월 31일 FA-50 무장운용 추가영역 확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지난 2014년 2월에 수주한 본 사업은 FA-50 항공기의 무장장착형상에 대한 지상 및 비행시험의 검증을 통해 FA-50 항공기의 무장운용형상 및 운용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검증받은 무장영역 외에 추가로 공군이 검증을 요구하는 11개의 무장운용 형상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7월 29일 3단계 모든 형상에 대한 '전투용적합판정'을 받았다. 이어 8월 26일에는 비행안전성에 대한 감항확인서를 획득했다. 이로써 FA-50 항공기의 작전 효용성 증대 및 전투력 개선은 물론 조종사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복합무장장착 및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고객 만족을 위한 KUH AH사 구성품(WSA) 정비 교육

우리 회사는 AH사(Airbus Helicopters, 이하 AH)와 협력하여 KUH를 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AH사 구성품 정비 교육을 실시했다. 2016년 9월 5일~6일 양일간은 부대급 정비 교육이, 9월 7일~9일까지 3일간은 약전급 정비 교육이 진행되었다. 육군 각 부대별 정비사 및 경찰청 정비사를 대상으로 한 본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항공기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비사의 이해를 높인 시간이었다. 또한 AH사 구성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비사의 정비 관숙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르헨티나 공군 평가단, FA-50 평가비행

9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에 걸쳐 아르헨티나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공군 평가단이 우리 회사 및 예천 16비를 방문하여 FA-50 평가비행을 실시했다. 5일부터 6일 이틀간은 우리 회사의 생산시설 견학을 하였고, 7일에는 예천 16비의 지원을 받아 실 평가비행을 실시했다. 아르헨티나 평가단은 평가비행 후 FA-50의 조종 용이성, 최신 항전시스템, ET 및 GBTS를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 등 FA-50 우수성을 확인했으며, 현 아르헨티나 공군의 항공기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항공기라 평가했다. 아르헨티나 FA-50 수주가 성사되면 중남미 대륙 최초의 수출로 FA-50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타 중남미 국가(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등)에 대하여 수주 도미노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CMMI Level5 인증학산 Kick-off' 행사 열려

지난 9월 6일, 우리 회사 개발센터 대회의실에서 CMMI Level5 인증학산 Kick-Off 행사가 열렸다. 우리 회사는 2014년 12월 항공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품질관리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CMMI Level5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번 CMMI Level5 학산을 통해 고정익개발본부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세계 최고의 수준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류광수 고정익개발본부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회사만의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가 가능한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캠페인 실시

우리 회사는 9월 6일 사천시 보건소 주최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남권역 뇌심혈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등의 여러 연계 기관과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 서클'이라는 주제 아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의 다양한 건강 상담이 진행됐다. 또 퀴즈대회 및 심폐소생술 등의 체험을 통해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쉽게 접함으로써 많은 임직원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 캠페인은 타 연령대와 비교하여 건강 위험 요인(흡연, 음주,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등)이 높은 3040세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방부 중앙보안감사 성공적 수검

우리 회사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방부 중앙보안감사 수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리 회사의 보안 실태를 확인한 중앙보안감사관은 "매월 보안 교육과 점검을 정례화하여 사내 보안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심사했다. 이율러 방산 자료 보호를 위한 보안관제체계 및 단계별 보안시스템 운용, 테러 방지에 대한 시설 보안 강화 등 세계로 발돋움하는 방산업체다운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하였다.



KT-1PA 국과연 시험기 안전비행검토회의(SRB) 실시

KT-1PA 국과연 시험기 안전비행검토회의(SRB)가 지난 9월 21일 항공기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군본부, 국과연, 기품원 등이 검토의원으로 참석하였으며, 안전비행 및 비행시험 준비 검토 결과 안전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다. KT-1PA는 KT-1P에 국과연의 필요 계측 장비를 탑재한 형상으로 군 감항당국의 감항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사무소, 국립서울현충원 자매결연 묘역 봉사활동

9월 21일 서울사무소는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자매결연 묘역인 45묘역의 조화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이동신 본부장 외 20여 명은 이날 조화 교체 외에도 현화 및 주변 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서울사무소는 2014년 3월 21일 국립서울현충원과 6,25 전사자가 안장된 45묘역 845기애에 자매결연을 하고 매년 2회 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다. 서울사무소는 이번 묘역 현화 및 정화 활동을 계기로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APT사업의 수출 성공으로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하반기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짐했다.





지난 7월 판보로 에어쇼에서 전시된 T-100의 목업. T-100은 경쟁 기종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시제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APT사업 경쟁 기종 분석 part 1 레이시온/ 레오나르도/ CAE

T-100 Integrated Training System

미 공군의 T-38 탈론(Talon)을 대체할 고등훈련기 획득사업(APT: Advanced Pilot Training)의 본격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경쟁 기종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KAI의 T-50A와 경쟁할 4개 기종의 현황과 강점 및 약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첫 회로는 T-100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회에는 나머지 경쟁 기종인 노스롭 그루먼/BAE 시스템즈/L-3, 보잉/사브, 텍스트론에어랜드의 스콜피온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기획 배화윤 차장 글 조문곤 항공전문기자

우여곡절 많았던 사업 추진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는 미국의 레이시온(Raytheon)을 주 계약자로 하니웰(엔진), CAE USA(지상훈련체계)와 팀을 이루어 APT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APT사업에서의 레오나르도 T-100(M-346)은 사업 추진 주체에 여러 변화를 겪는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제작사인 알레니아 아에르마키(Alenia Aermacchi)는 2016년 1월 1일부로 레오나르도의 항공사업부로 합병된 바 있고, 이보다 앞서 알레니아 아에르마기는 주 계약자로 2013년 1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C4 시스템즈(General Dynamics C4 Systems)를 내세워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시 알레니아 아에르마기는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는 미 육·해·공군의 많은 항공기 및 탑재 장비에 대한 통합 작업 노하우가 접목되며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

연재 순서

- ① 미 공군 APT사업 현황 및 분석
- ② 경쟁 기종 분석 pt.1
- ③ 경쟁 기종 분석 pt.2

를 걸었다. 그러나 파트너십 2년 여 만인 2015년 3월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T-100의 주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입찰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대변인은 “당초 T-100의 완성도와 우리의 사업 역량이 결합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미 공군의 잠재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점점 개발 소요가 많은 항공기로 변해가면서 가치 경쟁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며 입찰 철회 이유를 밝혔다.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나 T-100의 APT사업 추진은 2016년 새해 알레니아 아에르마키를 품은 레오나르도 항공사업부가 바통을 이어받았으며, 2016년 2월 새로운 주 계약자로 레이시온과 손잡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레이시온은 미 공군의 고등비행훈련 이전 과정인 UPT(Undergraduate Pilot Training) 과정을 수행하는 T-6 텍산 II와, 수송기 및 공중급유기 조종사들의 고등비행훈련 과정을 수행하는 T-1A 제이호크의 원제작사이며 미 해군 해상초계기 및 수송기 조종사 훈련기인 T-44A 페가서스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만큼 훈련 체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 보이나 이는 모두 과거의 일이다. 레이시온의 항공기 사업부를 2006년 12월 호커 비치크래프트에 매각하고 그 뒤 훈련기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바 있다. 때문에 레오나르도와 APT사업으로 다시 손을 잡기까지 레이시온의 훈련기 체계에 대한 업력 공백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미국색 입히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T-100

T-100이 이번 사업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미국색 입히기이다. 다시 말해 T-100은 외국(이탈리아) 업체가 아닌 미국 업체가 제공하는 솔루션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T-100이 APT사업 추진을 본격화한 2012년 가장 먼저 단행한 것은 이름을 바꾸는 일 이었다. 미 공군의 제식명칭체계와 다소 거리가 있는 M-346이라는 본 명칭을 버리고 미군의 명명체계와 동일하게 훈련기(Trainer)를 뜻하는 'T'와 미 공군 제트기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센츄리 시리즈를 뜻하는 '100'을 붙여 T-100으로 명명했다. 여기에 자상훈련체계가 강조되는 APT사업의 특성상 단순한 고성능 훈련기가 아닌 통합된 훈련체계임을 강조하는 ITS(Integrated Training System)라는 별칭이 추가됐다. 참고로 레오나르도가 이전에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현재 레이시온을 주 계약자로 내세우고 최종 조립을 미 본토에서 수행하는 것은 미 연방 국방 조달규정(DFAR: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때문이다. DFAR은 최종 제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조달 구성품 비용이 전체 구성품 비용 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함을 골자로 한다. 자연히 미국 내 제조 비율을 높일수록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레오나르도와 함께 팀을 이룬 하니웰도 미국에 본사를 둔 업체이며, 캐나다 업체인 CAE 역시 북미법인인 CAE USA를 내세우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색 입하기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이와 같이 레오나르도가 APT사업에서 외국 업체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벗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M-346(T-100)의 혈통 문제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 M-346의 기반 설계는 현재 러시아의 주력 훈련기인 야코블레프 Yak-130이 원형이다. 1990년대 초 아에르마키(알레니아 아에르마키의 전신)는 이탈리아 공군의 노후화되어던 MB-339를 대체할 새로운 훈련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러시아의 L-39를 대체하기 위한 차기 고등훈련기로 선정된 야코블레프 Yak-UTS는 러시아의 경제난과 그에 따른 개발 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공동 개발에 나선 것이었다. 하지만 야코블레프가 개발 분담금조달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아에르마기는 1999년 야코블레프와의 공동 개발을 포기하고 7,700만 달러의 기술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Yak-UTS 기반의 독자적 훈련기 개발에 나섰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T-100의 기반이 된 M-346이 된다. 그동안 알레니아 아에르마기가 독자적으로 자사 항전장비와 무장을 통합하고 수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지불했던 기술료의 조건에 개발 및 개량, 향후 수출에 대한 판권 일체에 대한 권리행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과적으로는 Yak-UTS는 오늘날 러시아의 고등 훈련기 Yak-130으로 러시아 공군에 채택되어 생





T-100과 피를 나눈 형제 기종이자 경쟁 기종이 된 러시아의 Yak-130(좌)과 중국의 L-15(우). 이들과의 관계는 APT사업의 평가 항목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T-100 입장에서는 결국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기종들이다.



산 및 배치가 진행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Yak-130의 기반설계는 중국의 흥두항공공업집단 (Hongdu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에 제공되어 L-15가 됐다. L-15는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군과 해군에 훈련기이자 전술입문기로 도입 중에 있으며, 미국의 턱밑에 위치하면서 관계가 매우 좋지 못한 베네수엘라 역시 2014년 24대의 L-15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T-100은 미국의 라이벌인 러시아 협통의 기체이자 중국과 베네수엘라 등 미국의 적국에 도입 중인 L-15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협통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오늘날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M-346의 경쟁자가 되어 맞붙고 있다.

물론 플랫폼을 러·중 훈련기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미 공군의 요구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APT사업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점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APT사업은 미 항공력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조종

사 양성 기체라는 점을 미 정부도, 국방부와 공군 성도, 레오나르도도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다. T-100의 비행 특성과 성능이 Yak-130/L-15와 유사할 수밖에 없는 만큼 T-100으로 조종훈련을 수행할 경우 러·중 조종사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기존의 T-38로도 지금껏 전장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적국 조종사보다 기량이 우수한 조종사를 양성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T-100을 도입해 조종기량 우위 확보가 불확실한 T-100을 채택할 이유는 더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T-100에 미국색을 입히려는 레오나르도의 다각적인 시도는 단순히 외국업체라는 인식을 지우기 위한 것을 넘어 T-100의 숙명적인 협통문제와 한계를 지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T-100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통합훈련체계

T-100은 굳이 ITS(Integrated Training System)라는 별칭을 붙일 만큼 통합훈련체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상훈련체계(GBTs)는 학생 조종사가 절차

숙지부터 실제 비행을 구현하는 e-러닝 시스템, 절차훈련용 시뮬레이터, 절차 및 기능 숙지를 위한 PTT(Part Task Trainer) 그리고 실제 비행과 동일한 환경과 움직임을 구현하는 360도 풀-미션 시뮬레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GBTS 구성은 여타 다른 훈련기들이 제공하는 훈련체계와 달라 보이지 않지만 T-100이 내세우는 강점은 바로 T-100에 탑재된 ETTS(Embedded Tactical Training Simulation)에 있다. ETTS는 데이터링크로 GBTS와 실제 공중을 날고 있는 T-100을 연결하는 체계다. 공중에서 T-100을 실제로 조종하고 있는 학생 조종사의 HMD(Helmet Mounted Display)를 통해 지상에 있는 학생 조종사가 항공기를 증강현실로 시현한다. 즉, 학생 조종사들은 공중과 지상에서 서로의 항공기를 증강현실로 보면서 시계 내 전투(WVR) 훈련을 할 수도 있고, 편대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범위는 센서부터 무장까지 탑재장비 일체를 포함하며 가상 전술 시나리오에 따라 해상이나 지상에 가상의 아군·적군을 증강현실로 모사해 시현이 가능하다. 지상의 교관은 실시간으로 시뮬레이터와 공중의 T-100을 조종하는 학생 조종사를 동시에 감독하고 통제하며 상황에 따라 개입하거나 상황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T-100의 통합훈련체계에는 공중이든 지상에서도 학생 조종사의 임무수행 전 과정의 데이터를 저장해 개개인별 디브리핑을 가능케 하는 MPDS(Mission Planning Debriefing Station)가 포함된다.

ETTS는 2015년을 전후로 전반적인 개발이 완료된 바 있다. 전술한 바대로 T-100으로는 (잠재)적



큰 내부용적을 가지며 쌍발엔진이 장착되는 T-100의 중앙동체의 모습. 두툼한 중앙동체는 기동 성능 면에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쌍발엔진은 운용 유지비 면에서 약점이 되고 있다.

되는 기동 성능을 기준치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실로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덧붙여 이번 APT사업에서 강조되는 것 중 하나로 장기간 운용되어야 하는 만큼 합리적인 유지비가 꼽힌다. 경쟁 기종 중 유일하게 쌍발엔진을 장착하는 T-100은 비용 면에서도 결정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항공기 유지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엔진이다. 매우 장기간 운용될 APT 기종으로서 쌍발엔진의 T-100이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 기종 대비 경쟁력 있는 유지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T-100과 M-346은 플랫폼만 공유할 뿐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항공 기다. 경쟁 기종들의 시제기들이 이미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거나 완성되어 모습을 드러낸 반면 T-100은 여전히 시제기를 완성하지 못한 채 목업 1대를 선보이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 APT사업의 요구 조건인 공중급유, 대형 디스플레이(LAD: Large Area Display) 그리고 가상훈련이 가능한 지상훈련체계(GBTs) 등이 있는데 GBTs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정식 제안요청서와 함께 사업 공고가 나오는 시점은 올 연말로 계획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평가 기간 내에 T-100이 시제기를 완성해 RFP의 세부 항목에 대해 비행시험을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국 조종사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CAE와 손잡고 ETTS로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종훈련의 핵심인 플랫폼의 한계를 지상훈련체계로 어느 정도나 보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숙제 많은 기체구조와 비행 성능

T-100이 APT사업에서 표방하고 있는 캐치프레이는 검증된 성능과 낮은 리스크 그리고 적정한 비용으로 운용(Mission-Proven, Low-Risk, Affordable)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기에는 안고 있는 숙제가 많다.

전통적으로 기동성을 중시하는 러시아의 설계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만큼 T-100은 훈련기로서 뛰어난 비행 성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 캐노피는 한눈에 보아도 면적이 넓고 크게 만들어져 있어 전방의 학생 조종사와 후방의 교관 조종사 모두에게 매우 양호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게 한다. 훈련기에게는 시야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T-100의 캐노피 및 조종석 레이아웃은 꽤 이상적인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T-100의 날개 면적은 23.5m²로 비교적 넓다. 40° 이상의 고받은 각도에서도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보장하며 실속 속도는 176km/h에 불과하다. 반면 공기중량은 5.2t에 불과해 탑재장비나 기본 구성을 고려할 때 가벼운 편이다.

반면 T-100의 기체 구조는 약점 역시 많이 안고



T-100의 풀-미션 시뮬레이터와 통제석의 모습.



배워서 남 주는 재능 기부, 함께 하실래요?

'KAI 나눔봉사단'이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지난 6개월간 나눔봉사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데는 나눔봉사단의 체계적 운영이 큰 몫을 했다. 봉사의 다각화를 위해 사무국 산하 재능기부, 봉사지원, 장학사업 세 개 분과를 편성, 각 분과의 특징을 살려 조직적 나눔을 실행한 것이다. 이에 〈Fly Together〉에서는 총 3회에 걸쳐 분과별 봉사 내용과 차별성, 앞으로의 계획 등을 살펴본다.

글 문석



KAI의 재주꾼, 여기 다 모였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전문 능력을 이웃에게 나누는 '재능 기부'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봉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 이에 발맞춰 KAI 나눔봉사단도 개인의 역량을 나눔에 활용할 수 있는 재능분과를 개설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자의 재능을 소외 계층과 공유함

으로써 기부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눔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다. 이러한 취지는 우리 회사 임직원의 마음을 움직였고, 현재 하영관 분과장 이하 총 75명의 재주꾼이 재능분과에서 활동 중이다.

재능분과는 'KAI의 재주꾼 집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분야도 다양한데 레크리에이션, 외국어 교육, 가전제품 수리, 의료 지원, 사진 촬영 등이 그것이다. 활동 범위 역시 넓다. 3월 출범 이후 경로잔치를 비롯해 아동복지 시설의 PC 수리 및 점검, 주 1회 중국어 교육, 노인 장수사진 촬영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설에서 활약했다.

정서적 교감 가능한 맞춤형 기부

재능분과의 가장 큰 차별성은 개인의 끼와 지식, 기술 등 무형의 가치를 나누고 공감한다는 점이다. 수혜자 입장에서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교감까지 가능하기에 만족도가 커지고, 기부자 역시 쌍방향 교감이 활발해 동기 부여가 된다. 이렇게 개인이 가진 전문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정서적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 일회성 기부가 아

닌 지속 참여 가능한 기부가 이어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재능분과의 활동 중 대부분이 기부자의 자발적 건의로 이루어진다는 점. 참여자 스스로가 재능을 나눌 대상을 고민하고 효율적인 기부 방안을 기획해 분과에 건의하며 활동을 전개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기부 형태로, 재능분과가 능동적 기부 문화의 룰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장 쉬운 나눔 법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눔, 양과 질 모두를 갖춘 특별한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면 재능분과의 문을 두드려보자.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비타민이 되어 줄 재능 기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의료나 교육 등에 재능이 있다면 의료 봉사나 공부방 등을 찾아 재능을 나누면 되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하거나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면 청소년 멘토나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줄 수도 있다. 개인이 하찮게 생각하는 지식이나 기술일지라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자.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기부의 참 의미를 일깨우고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일, 이제 우리 KAI인의 몫이다.

— Mini Interview

아주 쉬운 재능 기부에 동참하세요!

하영관 분과장



재능분과 개설 후 그동안의 활동은 ● 노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꾸준히 재능 기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분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동안 10여 개의 기부 활동을 진행했고,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죠. 한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전문가의 주도 아래 목적과 성격이 분명한 활동이 이루어져 수혜자들의 호응도도 높은 편입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 지난 8월 28일 사천 지역 무료양로시설인 삼소원을 방문,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장수 사진 촬영입니다. 뜻 맞는 기부자들이 모여 한복 대여와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지요. 사실 영정 사진 촬영이라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고 어르신들도 처음엔 안 찍겠다고 하셔서 이걸 어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곱게 화장하고 한복을 차려 입으시고선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시는 거예요. 사진 촬영을 맡은 최종조립생산팀3직 이민규 수석기술원과 원자재구매팀 김지한 사원이 어찌나 진행을 잘하던지 어르신들도 저희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의 밝은 모습이 담긴 장수 사진은 편집 과정을 거쳐 액자로 제작해 전달해드렸습니다.

재능분과만의 차별성은 ● 이름 그대로 재능을 나누는 분과라는 점입니다. 다른 봉사활동에 비해 주제가 확실하고 그 주제에 맞는 적격자가 주도하여 기부가 이루어지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큽니다.

재능 기부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일상이 즐겁고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할까요? 참여자들 모두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삶에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아내가 기부에 참여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 늘었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기부하는 모습을 보며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돋는 일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재능분과의 하반기 계획은 ● 여섯 건의 재능 기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요리 재능 기부', '연말 위로 공연', '사랑의 몰래 산타' 등이 대표적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상반기에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밑거름으로 보다 질 높은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힘들면 내년에 통합 재능 기부도 추진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 재주꾼이 한자리에 모여 소외 이웃들의 머리도 잘라주고, 사진도 찍고, 음식도 같이 나누며 한바탕 행사를 진행하면 정말 뿌듯하고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재능분과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나누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오십시오.



따뜻한 나눔, 훈훈한 기부 나눔봉사단, 추석맞이 이웃 사랑 펼쳐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에도

나눔봉사단의 손길은 쭉 이어졌다.
모두 행복하고 풍성하게 보내야 할
명절에 더 외롭고 쓸쓸한 이웃을 위해,
명절 준비도 뒤로 하고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누구보다 분주하게 이웃
사랑을 펼친 나눔봉사단에게 9월은
나눔과 베풀의 시간이었다. 주고받는
모두가 훈훈하고 풍성했던
나눔봉사단의 한가위 활동을 담았다.

정리 문석 사진 안종근

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물품 지원

KAI 나눔봉사단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맞춤형 물품 지원 활동을 펼쳤다. 나눔봉사단은 지난 9월 8일과 9일 양일간 사천과 진주 지역의 10개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해 전자제품, 의류, 생활용품 등 각 기관 당 300만 원, 총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봉사는 해당 복지기관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기관별 적합한 지원 물품을 발굴함으로써 기존 공급자 중심의 기부 활동을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한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기관인 '삼소원'에는 지난 8월 에어컨을 설치해드렸으며 소외 노인가정 방문봉사를 펼치는 '행복한 집'에는 노인 간병 용품, 장애인복지기관 '장애인평생학교'에는 교육용 PC 등을 지원했다. 또한 여성과 영유아가 많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내일

을 여는 집'의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말 사내 바자회를 열어 임직원이 기부한 570여 점의 의류와 1,000여 점의 아동 용품을 전달했다.

9월 8일 맞춤 물품을 지원받은 유아·청소년 보호시설 '신애원'의 이원재 원장은 "명절이면 더 외로움을 타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운영에 꼭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주셔서 한동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폭넓은 지원 위해, 후원 기관 늘려

추석을 맞아 나눔봉사단이 지원한 복지기관은 아동복지기관 신애원, 노인복지기관 삼소원, 행복한 집, 사천노인복지회관, 재활복지기관 합심원, 사천시재활센터, 진주복지원, 장애인복지기관 장애인평생학교, 장애인복지회관, 가정폭력 피하여 성쉼터 내일을 여는 집이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하

던 다섯 개 복지관에 다섯 곳을 추가해 올 추석을 기점으로 총 열 개 기관을 후원하게 됐다. 그동안 지원했던 노인과 아동 시설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재활, 여성 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소외 이웃에게까지 시야를 넓힌 것이다. 선정은 시로부터 충분히 보조를 받고 있는 시 직영 기관이나 수익(위탁)사업 기관은 제외했으며, 지원 부족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을 우선으로 택했다.

나눔봉사단 부단장 이학희 상무는 "많은 분들의 나눔으로 소외 이웃들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다. 단순한 물품 지원 형태를 넘어 소외 계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재활 의지를 심어 줄 수 있는 희망나눔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나눔봉사단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사랑의 난방키트 전달, 사랑의김장김치 나눔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더욱 밀착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나눔봉사단, 9월의 사회공헌활동

NEWS



'2016년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참여

나눔봉사단 재능분과가 지난 9월 24일 사천관내 복지시설 합심원의 행사인 '2016년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여했다. 생활인 99명, 자원봉사자 78명, 종사자 17명 총 194명이 참여한 체육대회는 자원봉사자와 생활인이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깊은 자리였다. 이날 재능분과는 행사의 사회 및 진행을 맡았으며, 다채롭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성남두레복지원 '노인경로잔치' 풀뿌리 봉사

9월 24일 재능분과는 사천관내 복지시설인 성남두레복지원 행사인 '노인경로잔치'를 찾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했다. 생활인 40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는 의료봉사, 자원봉사, 풍물 공연이 함께 어우러진 컬래버레이션 활동으로 봉사단은 혈압기, 혈당기, 공기압축마사지기 구입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했다. 또한 KAI 풍물동호회 민예풍물패가 신명나는 공연을 펼쳤으며, 다양한 물품도 기증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WORLD TODAY



제3세계의 핵폭풍 파키스탄

글 조문근 항공전문기자



(맨 앞에서부터)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16D 블록 52, 중국과 공동개발한 JF-17, 2006년부터 스웨덴에서 4대를 도입한 사브 에리아이(Erieye). 파키스탄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항공력의 핵심은 전투기와 조기경보통제기이다.

제3세계 핵폭탄의 뇌관

세계 여러 이슬람국가 중 유일하게 핵을 보유한 나라.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요람, 그러면서도 미국, 러시아, 중국, 제3국까지 나서 협력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애를 보내는 국가. 도저히 하나의 국가에 대한 설명이라 믿기 어렵지만 파키스탄은 바로 그런 나라다. 제3세계의 맹주인 인도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파키스탄의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슬람국가 중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주요 본거지로는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파키스탄 북부가 포함되어 있다. 언제든 테러 집단에 핵무기가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는 핵폭탄의 뇌관과도 같은 나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초강대 국들조차 파키스탄에는 상당히 유연한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GDP가 1,300달러 수준에

그치면서도 연 평균 정부 예산의 20%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어 전 세계 방위산업체가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다.

지정학적 위치도 파키스탄의 존재감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 대외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국가들과 접경하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 원유 공급 경로가 파키스탄을 지나기 때문이다.

핵전쟁 공포로 격화되는 인도와의 관계

이처럼 복잡한 대외 관계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파키스탄은 자연히 비동맹 중립외교노선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중심에는 파키스탄과 대립 중인 인도가 있다. 1947년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했지만 이슬람계인 파키스탄과 힌두교가 절대 다수인 인도는 각각의 국가를 세우게 됐다. 단순히 종교가 달라서가 아니라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는 이슬람교와 만물을 신으로 삼는 힌두교 두

종교 간의 갈등은 너무도 컸다.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지도자 간디는 종교를 가리지 말고 한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외치며 저항했지만 그가 암살당하면서 두 나라는 원전히 다른 국가와 다른 이념으로 갈라서고 만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해 분리된 나라는 자연스럽게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파키스탄 동부의 한반도 면적과 유사한 크기의 카슈미르를 두고 양국은 두 번에 걸쳐 전쟁을 치르며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다. 특히 파키스탄으로부터 저항하며 독립하려는 동파키스탄을 인도가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파키스탄-인도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방글라데시 독립전쟁(1971. 3. 26~ 1971. 12. 16)이다. 결국 동파키스탄은 인도의 막강한 화력과 물량을 등에 업고 파키스탄을 물리쳤고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는 데에 성공했다.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이 전쟁은 파키스탄에 대단히 큰 후폭풍을 남겼다. 전쟁



파키스탄이 보유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긴 사거리 갖는 사한-3. 2015년 3월에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사거리는 인도 전역을 사거리에 둘 수 있는 2,750km다.

의 패배로 현재의 서파키스탄 영토만 남게 됐고 전쟁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 계속되는 군사쿠데타와 군사독재로 정세와 경제가 영망이 됐다. 더욱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탈레반과 같은 아프간 급진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파키스탄으로 유입되었는데, 군부가 이들을 포용하고 지원하면서 파키스탄은 국제사회로부터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테러의 본거지로 낙인 찍혀버렸다.

브레이크 없는 핵무기 경쟁

1999년 최초의 핵무장국 간의 전쟁으로서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카길전쟁이 터졌다.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의 카길 지역을 선점한 이후 인도가 파키스탄군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발발한 전쟁이었다. 인도가 1974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핵보유국으로 올라선 이후 파키스탄도 국력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핵개발에 매진했는데, 결국 1998년에 첫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파키스탄과 인도의 핵무기 경쟁이 본격화된 바 있다. 양국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터진 전쟁이어서 핵전쟁의 공포는 더욱 컸다.

파키스탄과 인도가 추구하는 비동맹 중립노선은 파키스탄-인도 관계의 위험성을 배가시킨다. 즉, 서로의 동맹국들 간 이해관계가 얹히면 양국 간의 관계가 나빠져도 뒤에서 있는 더 강력한 동맹국의 존재가 서로에게 전쟁을 억제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지만 양국의 비동맹 중립외교

주요기종 및 보유/주문 현황

기종	보유	주문
F-7	140	
F-16A/C	46	
JF-17	49	50+50
미라지 IIIEP/OF/RP	69	
미라지 5EF/F/PA	90	
팰콘 20 EW	2	
킹에어 350	4	
사브 2000 AEW	4	
Y-8(ZDK-03)	4	
IL-78	4	
C-130B/E	16	
CN235	3	
Y-12	3	
F-16B/D	31	
FT-5	25	
K-8	38	
미라지 IIIE/D/DP	18	
T-37	18	34
육군		
AH-1F	48	
AH-1Z	15	
WZ-10	3	
Mi-35	-	4
Mi-17/171	46	
AS550	17	
벨 206	19	
벨 412	32	2
SA330	45	
Y-12	4	
해군		
F27	7	
P-3C	6	
ATR72	3	
SA316/319	7	
시킹45	6	
Z-9	6	

Source: Flightglobal World Air Forces Data Base 2016



파키스탄이 보유한 플랫폼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기종은 단연 F-16C/D 블록 52+다. 당초 55대 이상 도입이 예상되었으나 인도의 극렬한 반대와 미국이 도입 예산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원조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면서 1차 도입 18대 이후 추가 도입은 난망한 상태다.

는 양국 간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바로 전쟁으로 돌입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전쟁이 격화되면 언제든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후 2008년 인도 뮤바이 연쇄 테러와 2014년 군사통제선 부근 교전 등으로 파키스탄과 인도 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이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국력 면에서나 군사력 면에서나 도무지 상대하기 어려운 거대한 인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국력을 집중해 핵무기 개발에 매진해 온 결과 오늘날 파키스탄은 최소 12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8월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과 스팀슨센터가 작성한 보고서는 빠른 속자로 핵탄두 수를 늘려가는 파키스탄이 10년 안에 최소 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어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육·해·공군 각각에 전략사령부를 설치하고 핵무기

를 운용 중에 있다. 2015년 3월에는 사실상 인도 전역을 사거리에 두는 2,750km의 사한-3 중거리 단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잠수함발사 단도미사일(SLBM) 운용이 가능한 핵잠수함도 개발 중에 있다. 공중무기로는 700km급 바부르 순항미사일과 350km급 라드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미사일은 전력화한 JF-17 전량과 F-16 12대에서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제를 중심으로 한 다원화된 항공력 구성

파키스탄의 주요기종 및 보유/주문 현황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기종들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했거나 중국과 공동 개발한 기종들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방산협력이 활발한 국가가 중국과 파키스탄이다. 그만큼 중국제 기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항공력을 구성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과도한 해외 의존도에서 벗어나 방위산업 자립에 많은 재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중국



WORLD TODAY



여전히 수량 면에서는 적지 않은 비중의 F-7. 궁극적으로는 JF-17로 전량 대체될 예정이다.

과의 방산협력을 필두로 같은 이슬람계인 터키와도 협력에 노력하여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파키스탄의 제3국을 통한 방산협력 노력은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및 무기 금수조치 때문이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과 2001년 9.11테러 보복전쟁 등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위해 파키스탄을 군사적으로 필요로 할 때만 금수조치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며 F-16과 P-3C 등을 도입하는 성과도 있긴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너무도 변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항공력 증강을 위해서는 제3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항공력 증강의 주축에는 미라지 시리즈와 같은 프랑스 제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해 해결하는 한편 방산협력 측면에서는 인도와 양숙인 중국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파키스탄 항공력의 주력은 미라지 시리즈와 중국의 청두가 MiG-21를 면허생산한 F-7이다. 하지만 F-7의 경우 성능적으로 너무 뒤떨어져 대체기를 모색했는데 이것이 바로 청두와 파키스탄항공산업(Pakistan Aeronautical Complex)이 공동 개발한 JF-17이다. 대체해야 할 F-7의 수량이 많은데다가 JF-17이 자국의 항공산업을 이끌 기체로 여겨지면서 파키스탄에는 대량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복좌형 JF-17B의 생산이 시작됐고 JF-17의 문제점 중 하나인 부족한 항속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급유 프로브를 갖추고 항전장비가 개량된 블록 II의 개발이 한창이다.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수출에

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JF-17은 F-16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과 기존 중국제 기체들을 뛰어넘는 신뢰성을 내세우고 있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레바논, 모로코 등 F-7을 운용 중인 국가를 중심으로 국방 예산이 넉넉지 않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의 이러한 노력을 2015년 파리에어쇼에서 결실을 맺었다. 3대의 JF-17을 참가시켜 지상 전시 및 시범비행을 펼칠 만큼 활발한 판촉을 벌였던 파키스탄은 익명의 아시아 국가가 JF-17 도입을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IHS 제인스 보도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남아공에서 열린 아프리카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AD 2016)에서 나이지리아가 수량 미상의 JF-17 도입을 거의 확정지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파키스탄의 JF-17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 중 눈여겨 볼만한 국가가 바로 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퇴역한 미라지 시리즈 전력보완과 퇴역이 임박한 A-4R을 대체하기 위한 기종을 물색 중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공군 대표단이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방문해 TA-50과 FA-50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바 있는데 같은 체급의 JF-17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부터 4대를 도입해 2015년 2월 전력화를 마친 ZDK-03 카라코람 이글(Karakoram Eagle). 신시 Y-8에 휴전식 AESA 레이더를 얹은 기체로 중국의 KJ-500을 파키스탄의 작전요구조건에 맞춰 제작한 기체다. 파키스탄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브 에리아이를 능가하는 탐지거리를 가진다. 파키스탄은 KJ-500계열 기종의 첫 해외 도입국이다.

우리나라와의 방산협력

파키스탄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다. 우리 공군이 2004년까지 조종훈련용으로 운용하다가 KT-1



중국과의 깊은 방산협력의 상징인 JF-17. 파키스탄 항공력과 항공산업의 미래의 상징이기도 하다. JF-17은 FA-50과 유사한 제원을 가지고 성능적으로는 한 수 아래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투기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어필하고 있다. 개발 중이던 2011년 단 한 차례의 추락사고만 있었을 뿐 중국제의 치명적인 단점인 신뢰성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으로 대체한 T-37이 퇴역 후 4년만인 2008년 T-37의 엔진과 각종 수리부속을 13억 원 규모로 수출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파키스탄 교역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각종 건설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했고, 공적 개발 원조도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2014년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샤리프 총리와 한·파키스탄 무역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자리에서 FA-50 수출을 타진한 바 있다. 당시 인도가 개발 중이던 테라스 전투기의 개발원료가 임박해왔지만 JF-17로는 성능적 우위를 보장할 수 없다. 파키스탄이 성능적으로 한 수 위인 FA-50에 관심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처럼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방산협력이 상당히 돈독한 편이어서 미국이 파키스탄에 군수물자를 수출하는 것에 대단히 민감한 편이다. 당연히 FA-50 수출 역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2012년에 우리나라가 파키스탄에 미국의 원천기술이 쓰인 AN/ALQ-200K ECM 포드를 파키스탄에 판매하려다가 미국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과는 별개로 더욱 근본적으로는 파키스탄이 JF-17의 추가 개발 및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JF-17이 FA-50과 경쟁 구도를 이루게 됐기 때문에 현재는 2014년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할 수 있다.

제3국과의 방산협력

어쨌든 파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전략과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한 대테러 전략 구현에 있어 미국에게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수는 없다. 2006년에는 18대의 F-16 C/D 블록 52를 판매하기로 결정하기도 했고, 이 중 6대가 2010년 파키스탄으로 인도되기 전 미 본토에서 열리는 다국적 공중연합훈련인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가한 바 있다. 지난 7월 열린 레드 플래그 2016에는 파키스탄 공군의 F-16C/D 블록 52+ 6대가 처음으로 페리비행을 통해 참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C-130B/E 성능개량과 F-16에 새롭게 장착될 스나이퍼 포드, 스캔 이글 전술 무인정찰기 그리고 파키스탄 육군 및 해군용으로 최신 AH-1Z 바이퍼 등의 판매를 승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 오랫동안 공을 들인 끝에 미 의회의 수출 승인까지 떨어진 최신예 F-16C/D 블록 52+ 8대의 추가 도입이 인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고 결국 F-16 추가 도입은 요르단의 중고기체를 물색하는 상황이 됐다. 이 사례에서 드러났듯 파키스탄은 인도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제3국과의 방산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파키스탄은 러시아나 스웨덴, 프랑스 등과 협력해 항공기들을 도입하지만 제3국 중에서는 같은 이슬람계인 터키와의 협력이 두드러진다. 1980년대 초부터 도입돼 개량이 절실했던 F-16A/B 개량사업도 터키항공우주산업(TAI)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시작돼 2014년 마무리된 41대의 F-16A/B 중기 수명연장사업도 TAI가 수행했다. 이밖에 파키스탄은 자국 학생조종사들을 터키에 보내 터키 공군의 KT-1T와 T-38에 의한 조종교육을 위탁해 교육시키기도 한다. 더불어 터키 주도의 연합공중훈련인 아나톨리안 이글(Anatolian Eagle) 훈련에 빠지지 않고 파키스탄의 전투기들을 파견해 돋독한 양국의 군사 및 방산협력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중고기체로 2012년까지 8대를 도입한 파키스탄 해군의 P-3C. 인도의 팽창하는 해군력 견제를 위해 필수적인 자산으로 주도권을 원하고 있지만 중고기 부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2011년 5월 탈레반의 기습격으로 2대를 상실한 바 있다.

PAKISTAN

Travel tip

F 주요 여행지

라호르성과 살리마르 정원 198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사자한(Shah Jahan, 1627~1658) 황제 시대에 전성기였던 친란한 무굴 문명을 대표하는 걸작이다. 성채에는 모자이크와 금박으로 장식된 대리석 궁전과 모스크가 있다. 라호르시 가까이에 정자, 폭포 그리고 장식이 된 카다란 연못 등 3단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정원은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우아하다.

파키스탄 국립박물관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州)의 카라치에 있는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은 1866년 건축된 고대 건축물 프레르홀에 1951년 개관했다. 눈여겨볼 것은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인더스 문명의 여러 유물과 간다라 조각품으로, 평소 접할 수 없었던 고대 문명을 감상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선사시대 방에 전시되어 있는 '킹 프리스트'의 석상이 출렁한데,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납석 흉상이다.



수도 이슬라마바드

언어 우르두어(공용어), 영어(상용어)

면적 796,095km² 세계 36위(CIA 기준)

인구 약 196,174,380명 세계 6위(2014. 07. est. CIA 기준)

화폐 루피(Rupee)

GDP 22,909,079백만루피(US\$ 2,314억)

기후 고온건조한 아열대 기후



대표 음식

카레 파키스탄의 주식으로 12가지의 향신료를 넣고 만든 소스는 국내에서 맛볼 수 있는 카레와는 다르다. 야채가 많이 들어간 한국식과 달리 양고기, 닭고기 등을 넣어 걸쭉한 것이 스튜에 가깝다.

사모사 만두와 유사한 모양으로 페이스트리 반죽으로 만든 피 속에 감자, 완두, 다진 고기 등을 채워 기름에 튀긴 음식이다. 향신료로 간을 해 독특한 향이 특징이며 정에서는 주로 차이(chai, 인도식 티)와 함께 먹는다.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흩어진 열 사람보다 하나로 뭉친 두 사람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아무리 뛰어난 인재일지라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지원해주는 조직과 동료가 없다면 이상을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의견을 공유하고 단점을 보완해주는 조력자가 있어야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하나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이지요.

처음부터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동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동료애를 기반으로 역량을 발휘할 때 조직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이제 한 명의 천재가 수백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아닌, 각기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구성원들이 어우러져 조직의 경쟁력을 만드는 시대가 온 것이죠.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고 합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건 홀로 선 외나무입니까, 울창하고 푸른 숲입니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살이, '우리'라는 이름 아래 상호 보완하며 알찬 열매를 맺어보세요.





150년 짹고 200년으로 간다 **‘장수 기업’ 바스프**

바스프(BASF)? 분명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름인데 생소하다. 하지만 독일에 본사를 둔 바스프는 연 매출이 약 90조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화학 기업이다. 바스프는 미국 종합 경제지 포춘(Fortune)이 2016년 발표한 ‘500대 기업’ 리스트에서 전체 기업 가운데 88위, 화학 업종에서는 1위였다. 세상의 수많은 화학 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 바스프는 신화다. 화학비료, 스티로폼, 자외선 차단제의 피부 보호 필터, 기저귀에 들어가는 수분 흡수재 등이 바스프의 실험실에서 발명되었다. 매년 유럽 특히 출원 순위에서 전체 10위 안에 들뿐만 아니라 화학 업종 1위를 놓치지 않는다. 특이한 것은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무려 150살이 넘은 ‘장수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1865년 설립한 바스프는 작년(2015년) 150번째 생일을 맞았다.

글 강영구 일러스트 신미래

바스프의 장수 비결, 혁신

대다수의 일류 기업이 수십 년도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는 상황에서 150년 넘게 업계 최정상의 위치를 지켜온 바스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프리드리히 앵겔호른(1821~1902년)이 처음 바스프를 시작할 때, 이 기업의 정체성은 염료 제조였다.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을 주도하던 섬유, 방직산업에 색깔을 입히는 염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청바지의 파란색을 내는 염료 ‘인디고(Indigo)’를 처음 인공으로 합성해서 생산한 것도 바스프다(1885년).

바스프는 염료에 이어서 화학비료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이 과정도 흥미롭다. 프리츠 하버는 1908년에 질소와 수소로 화학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이 연구에 주목한 바스프는 하버와 공동으로 값싼 화학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결국 바스프는 1913년 세계 최초로 화학비료를 대량 생산한다.

바스프가 이때 개발한 ‘하버–보슈법’은 지금도 화학비료의 약 40%를 생산할 정도다. 그렇다면, ‘하버–보슈법’의 보수는 누구일까? 바스프가 하버와 암모니아의 합성 방법을 개발할 때, 바스프 직원으로 하버와 공동 연구를 한 책임자가 바로 카를 보수다. 그러니 ‘하버–보슈법’의 다른 이름은 ‘하버–바스프법’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그러나 바스프는 2012년 화학비료사업을 러시아 회사에 매각한다. 인디고 등 염료 제품 역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바스프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경쟁자가 있는 제품은 비록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련 없이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 대신 바스프는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

예를 들어, 바스프가 지금 주력하는 분야는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전지다.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되면 그 핵심 부품인 전지 수요가 늘 수밖에 없

으리라고 전망한 것이다. 기저귀에 쓰이는 초강력 흡수 물질은 이미 또 다른 성공 신화를 썼다. 전 세계의 수많은 기저귀 회사에서 바스프의 이 흡수 물질을 사서 쓴다.

일반인에게 바스프가 생소한 데는 이유가 있다. 바스프는 더 이상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소비재를 생산하지 않는다. 한때 바스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생산 회사였다. 하지만 1980년대 CD를 비롯한 디지털 저장 매체가 등장하자, 바스프는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생산 산업을 접으면서, 더 이상 소비재를 생산하지 않는 대신 수분 흡수 물질을 기저귀 회사에 공급하는 것과 같은 B2B(기업 대 기업)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바스프가 세계 최대의 화학 기업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처럼 현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때문이다.

혁신의 비법,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그렇다면 늙은 기업인 바스프가 혁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충전할 수 있는 비법은 어디에 있을까? 최초의 화학비료 생산 과정에서 대학에 있었던 하버와 공동 연구를 수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바스프는 끊임없이 기업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요즘에는 상식이 되어버린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 즉, ‘산학 협력’ 모델을 최초로 개발한 것도 바스프다.

바스프 혁신의 또 다른 비법은 ‘페어분트(Verbund)’라고 불리는 바스프 고유의 생산 시스템이다. 페어분트는 상호 연결된 수많은 기업이 한곳에 모여서 생산, 관리,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는 식으로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인근 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면 양쪽 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바스프는 독일 루트비히스하펜에 200개가 넘는 공장을 한곳에 모아 놓음으

로써 이런 페어분트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곳은 전 공장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원자재 수송에 있어서 발생되는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했는데, 이런 페어분트로 이곳에서만 연간 5억 유로(약 6,300억 원)의 석유를 아꼈다.

현재 바스프는 루트비히스하펜 외에도 미국 프리포트와 가이스마, 벨기에 앤트워프, 말레이시아 쿤탄, 중국 난징 등 총 6개 도시에서 대규모 페어분트 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 페어분트는 이제 바스프를 넘어서 화학 기업이라면 누구나 흉내 내는 방식이 되었다. 바스프 방식이 화학 업종의 표준이 된 것이다.

바스프, 미래를 준비하다

19세기 중반에 등장한 바스프가 22세기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낙관적이다. 이 기업은 현재 미래산업으로 두 가지를 선점하고자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는 석유나 가스를 원료로 하지 않고 옥수수나 콩 혹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물을 자원으로 기존의 화학제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 기체를 내뿜을 뿐만 아니라, 고갈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 연료가 아닌 식물 연료를 이용해 화학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꾀하는 것이다.

또 다른 미래산업은 앞에서도 언급한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2차 전지다. 바스프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65년에 석유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가 도로를 다니더라도, 그 안에는 바스프의 화학 공장에서 제작한 핵심 부품이 들어간 전지가 장착되어 있으리라는 것이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150년을 버텨온 바스프, 이제 바스프는 200년을 향해서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쓰고 있다.

기체품질팀 부품검사직
최성용 수석기술원

날카로운 지성, 뜨거운 감성 지닌

품질 검사의 장인

글 구보람 과장, 문석
사진 안종근



프로필 47호 달인
이름 최성용
부서 기체품질팀 부품검사직
직급 수석기술원
입사 1989년 입사
경력 특수공정검사 12년, 복합공정검사 16년
주업무 복합재 기체부품 품질 검사(KUH)



자타 공인 복합 검사 부문의 권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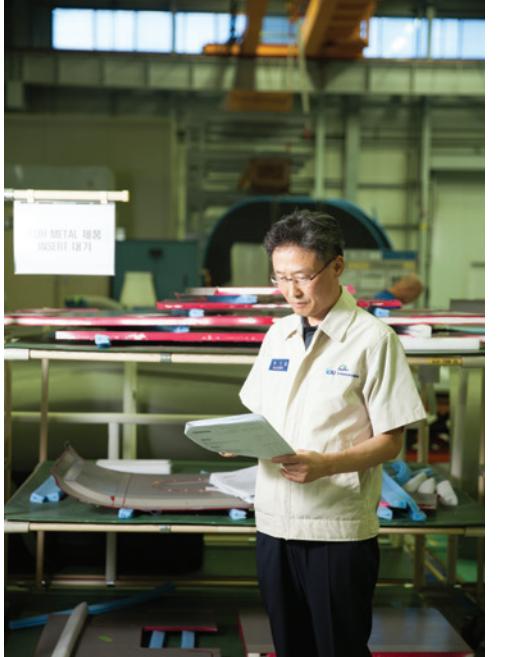
흔히 품질검사원을 깐깐하다고 말한다. 검사원의 결정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만큼, 빈틈없고 신중하게 업무를 임하기에 생긴 말일 테다. 여기 한 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고 제품의 완벽을 추구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기체품질팀 부품검사직 최성용 수석이다. 철저한 검사 절차 준수와 사전 준비로 무결점 항공기 제작에 기여하고 있는 그는,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깐깐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달인이다.

"기체부품 중에서도 복합소재 특수공정 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합재는 탄소섬유 소재를 적층하여 기존 철골보다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신소재로, 다양하고 심층적인 검사 기법이 적용되지요. 육안 검사와 계측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여러 공정을 거치는 복합재의 특성상 수많은 도면을 숙지하고 있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검사 기법 중 최성용 수석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는 것은 '직접해보기'다. 검사원이 제조 과정을 몸소 참여해야만 불량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 제조 과정을 모르면 검사 시 간과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작업자와의沟리도 더 커진다는 그는 "검사원은 작업자를 규제하고 어깃장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품질을 추구하는 동료이기에 함께 작업하며 공정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열정과 도전 의식은 28년 전 그대로

최성용 수석이 품질에 가지는 열정과 애정은 상상 이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입사 후 기체품질팀에서만 28년 경력을 고스란히 쌓았다. 회사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그이기에 기억에 남는 업무도 여럿이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업무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의 로터블레이드(헬리콥터의 프로펠러) 품질을 검사했던 것이다. 당시 그는 헬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보니 품질을 검사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밖에 없어 실제 우리 헬기



치 않고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더 많이 배우고 조원들과 협력하여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8년 동안이나 한자리를 지켜왔는데도 더 배울게 있느냐고 묻자, "품질 업무의 가장 큰 매력은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또 다른 영역을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했다. 또 경험보다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식으로 볼 줄 아는 창의력이 필요하기에 도전 의식과 열정은 항상 차고 넘친단다.

평소에는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뜨겁게 끓어오르는 열정과 패기가 있다. 검사원으로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간성이 공존하는 최성용 수석. 앞으로도 우리 회사의 검사원으로서 회사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오래도록 기여할 것이다.

칭찬합니다



일이면 일, 성격이면 성격, 어디 하나 부족한 곳 없는 팔방 재주꾼입니다. 천철한 심성과 타고난 업무 능력으로 누구나 닮고 싶어 하는 우리 팀의 멘토이지요. 완벽한 실력을 지닌 최고의 검사원으로,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복합 검사의 최고참입니다. 검사 노하우 전수를 통해 품질 향상 및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지요. 사내 풍물동 호회의 청길 맴버로 사내외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무의 달인이다. 나눔 전도사입니다.

FLY NEWS



러시아 스텔스기 T-50 PAK FA, 2017년 양산

미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의 대항마로 알려진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T-50 PAK FA가 2017년부터 양산된다. 2018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시기가 내년으로 약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지난 9월 7일 러시아 스포트니크 통신은 유리 보리소프 국방차관이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6년 군 포럼'에서 "T-50이 2017년부터 공장 생산될 예정이고 러시아 공군은 1개 비행대가 사용할 정도의 해당 기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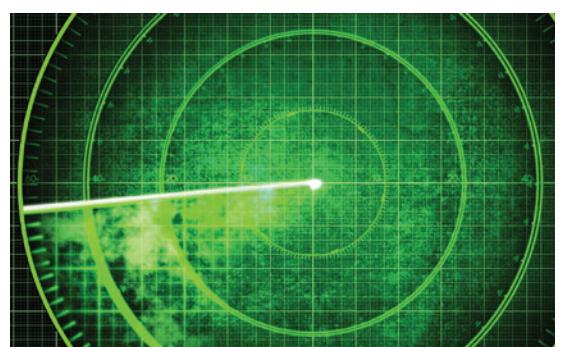
러시아의 주력기인 Su-27과 MiG-31을 대체할 T-50은 F-22와 유사한 성능을 지녔으며, 내부에 서 강력한 전기를 발생시켜 레이더 전파를 완전히 흡수하는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T-50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는 콤소몰스크-나-아무르(KnAAZ)는 향후 T-50에 장착될 2단 계 엔진 개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험비행을 수행 중인 8대의 T-50 시제기 중 4대는 KnAAZ에서 조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스텔스기 천적 '양자레이더' 개발 성공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양자(量子) 통신 위성 발사에 성공한 중국이 최근 스텔스 전투기의 '천적'으로 불리는 양자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는 "제14연구소가 최근 처음으로 단광자 검출 기술에 기반을 둔 양자레이더 시스템을 연구·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양자레이더는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정보를 저장·검색·전송·처리하는 양자 정보 기술을 레이더 탐지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종합적인 능력을 개선, 스텔스기와 같이 반사 신호가 낮아 재래식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물체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가 실제 대기 환경에서 목표물 탐지 실험을 한 결과 양자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100km급이었으며

탐지 정밀도가 기존 레이더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는 등 연구에서 종대한 진전과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로체스터대학 광학연구소는 2012년 자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전파 교란을 차단할 수 있는 양자레이더를 연구·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미 해병대, F-35B 등 주력기에 레이저 무기 장착

미 해병대가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춘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거의 모든 보유 항공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군 주력기들이 레이저 무기를 갖추는데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셔널 디펜스, ARS 테크니카 등 전문 매체에 따르면, 로버트 월시 미 해병대 전투발전사령관은 지난 8월 30일(현지 시간) 국방 담당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F-35B, F/A-18E/F 전투기,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수퍼코브라 헬기, KC-130 공중급유·수송기 등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항공기에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Directed Energy Weapon)'로 불리는 레이저 무기 장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 또는 '살인 광선(Death Ray)'이라 불리는 레이저 무기는 전자기파나 입자빔을 한곳에 집중시켜 만들어진 고출력 에너지를 표적에 발사해 파괴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 무기 체계다. 월시 사령관은 "해병대가 미래 전쟁에 대응하려면 레이저 무기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F-35B에 레이저 무기를 필수적으로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 드론으로 음식 배달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실제 음식 배달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하기 위해 상업용 드론 '프로젝트 왕'의 시범비행을 시작했다. 알파벳은 FAA의 드론 시험장이 있는 버지니아 공대와 제휴를 맺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알파벳은 치폴레의 푸드 트럭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드론을 통해 음식을 배달한다. 드론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움직이며, 규칙대로 FAA의 중간 관리자가 이를 지켜본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다. 알파벳은 드론 배달 노하우를 습득,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하는 방법 및 비행 시 유의 사항 등을 학습해 추후 드론 배달을 상용화할 계획이며, FAA는 알파벳의 시범비행을 통해 상업용 드론 배달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FAA는 지난 8월 29일부터 드론에 대한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상업용 배달을 위한 드론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FAA는 상업용 드론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기기에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본 실험을 승인했다.



미군, 차세대 군용 수송기 '호버바이크' 실물 최초 공개

미군이 차세대 수송 및 이동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군용 호버바이크를 공개했다. 미국 국방부(DOD)는 최근 군사 목적 정찰 및 운송 수단인 호버바이크의 포로토타입인 JTARV(Joint Tactical Aerial Resupply Vehicle)를 공개했다.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로도 불리는 군사용 호버바이크는 바퀴 대신 모터가 장착된 프로펠러 네 개만으로 수직 상승이 가능한 비행체다. 영국의 멜로이 에어로노틱스(MA) 제작사와 미 방산기업 서비스 엔지니어링이 함께 개발한 호버바이크의 상단에는 사람이나 로봇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실물 크기의 3분의 1 정도 되는 모델로 비행 테스트도 실시한 바 있다.

JTARV는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중 '제다이의 귀환'에 등장하는 스톰트루퍼들이 사용하는 비행체

'스피더'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 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에 공개된 프로토타입은 연료를 한 번 주입하는 것으로 45분간 약 92마일을 비행할 수 있으며, 270kg 정도의 화물 수송이 가능하다.



중국 공군 사령관, 차세대 전략폭격기 개발 확인

중국이 차세대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개발 중이라 고 마샤오톈(馬曉天) 공군 사령관(사령원)이 직접 밝혔다. 지난 9월 2일 중국 환축왕 등 관영 매체는 지린성 창춘시에서 개최되는 항공발표회(에어쇼)에 참석한 마 사령관이 "공군의 장거리 공격 능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고 향후 더 강화 될 것"이라면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략폭격기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미군 B-2 스피릿 전략폭격기와 비슷한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개발 중이라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싸여 있었기 때문에 공군 사령관의 이번 언급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유력 군사 전문가인 인쭤(尹卓) 예비역 소장은 중국의 차세대 전략폭격기에 관련해 스텔스 기능과 장거리 공격 능력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인 소장은 차세대 전략폭격기는 대륙 간 이동이나 그에 준하는 장거리 비행 능력이 있어야 하고, 최소 작전 반경이 5,000~6,000km에 달하며 공중급유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30t의 무장탑재, 스텔스 기능 및 초음속 비행 능력 등 조건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KFX항전HW팀 이주형 선임
가족의 북아트 체험기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낸

가족 앨범 DIY



계속되는 열대야로 불면의 밤을 지새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어김없이 가을로
접어들었다. 제법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와 달는 이 쾌청한 계절을 그냥 보내기
아쉬워 특별한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북
아트 공방의 문을 두드린 이주형 선임 가족.
한 땀 한 땀 정성어린 손길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 앨범을 완성하니, 어느새
세 식구의 얼굴에 서로를 빼닮은 미소가
묻어난다.

기획 배화윤 차장 글 이용규 사진 안종근



추억을 기록하는 소중한 저장소

요즘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인 세상에 곱게 인화한 여러 장의 가족사진을 접하니 멋스러운 느낌이 듦다. 사진 속 주인공은 이주형 선임과 부인 김소정 씨 그리고 딸 은수.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장 한 장 넘겨본 사진 속에 네 살 은수와 부부가 함께 한 예쁜 추억이 아로새겨져 있다.

“오늘 가족 앨범을 직접 만든다고 해서 몇 장 골라왔는데 지금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 사진은 작년 딸기밭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은 은수 두 살 때 놀러간 사진이네요. 그리고 보니 우리 은수가 참 많이 컸네.”

사진 속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은수가 배시시 웃으며 한마디 한다. “나 이때는 아기였는데 지금은 아기가 아니에요”라고.

이렇듯 사진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새겨져 있다. 행복했던 순간, 좋았던 기억들을 가족끼리 온전히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을 추억 저장소라 이름 부르는 것일 게다. 아무쪼록 오늘 이주형 선임 가족이 가족 앨범을 직접 손으로 만들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추억을 저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꼼꼼하고 세심한 공대생의 손길을 보라

가족 앨범을 만드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해서 앞뒤로 꽃 천을 부착한 표지를 만든 다음, 비닐 속지를 넣어 마무리하면 완성이다. 주의할 점은 속지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풀이 묻지 않도록 하면서 위아래 옆면을 잘 맞춰서 풀칠을 하고 단단하게 붙여야 한다. 과정은 간단하지만 원단을 두꺼운 표지에 붙이는 작업이라 밀거나 당겨서도 안 되고, 제대로 풀칠이 되지 않으면 자칫 표지와 원단이 뜰 수 있기 때문에 막대기나 자 같은 도구를 사용해 강약을 조절해 골고루 풀칠을 해야 한다.

“이 풀이 심상찮은데? 두꺼운 종이에 원단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성능이 좋은 풀인가 보다.”

실리콘 성분이 들어간 신제품 풀이라는 지도 강사의 설명에 이주형 선임은 ‘그럼 그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다 갑자기 은수에게 당부를 한다. “은수야, 이 풀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 잘못하다가 손이 들려붙으면 큰일 난다.”

강사의 설명을 척척 알아들으며 두꺼운 표지에 원단을 붙이는 꼼꼼한 손길이 보통이 아니다 싶은 데, 아니나 다를까 이주형 선임은 어릴 때부터 프라모델과 같은 조립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 아내 김소정 씨는 “남편은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직접 매립할 정도로 ‘천생 공대생’이라”며 웃는다. 그런 아빠를 닮아서 은수 또한 또래보다 손끝이 아무진 편이라는데, 네 살짜리 고마가 목걸이 고리를 훈자 거는 걸 보고 엄마는 역시 그 아빠의 그 딸이라는 생각을 했단다.

“은수는 예민한 성격도 있지만 흥도 참 많아요. 벌써부터 수학 책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저보다는 아빠를 더 많이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빠를 더 많이 닮았다는 엄마의 말에 이주형 선임도 공감하면서 자신과 똑같은 외모를 자는 모습까지 그대로 빼닮아 볼 때마다 ‘내 분신’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아빠가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니 우리 딸은 비행기를 많이 타고 해외를 많이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장차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크게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분홍색보다 파란색을 더 좋아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 뚜렷한 은수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아빠, 천생 공대생에 보태 천생 딸 바보가 아닐 수 없다.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가족이 함께 제작한 가족 앨범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표지 앞뒤 면을 꼼꼼하게 풀칠하고 붙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보는 이주형, 김소정 부부. 직접 만든 작품이니만큼 더 예뻐 보이고 애착이 가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가족 앨범 제작에 이어 은수를 위해 간단한 가죽 소품을 만들기로 한 가족들. 기다란 종이를 층층이 접어 속지로 넣은 다음 가죽 표지를 입히니 금세 멋진 열쇠고리가 탄생했다. 뛰어어 각자의 아너셜을 새긴 팔찌를 함께 만들고 또 팔에 채워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이주형 선임은 오늘 체험에 참여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듈다. 사실 아내 이소정 씨는 그동안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이야기를 자주 해왔단다.

“은수가 만 3살이 지나면서 새로운 것을 접하면 습자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하고 있어요. 뭐든 손으로 만지고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상황이지요. 그동안 아내가 그런 은수를 위해 다양한 가족 체험을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며 기회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 모처럼 남편 노릇, 아빠 노릇한 거 같아 뿌듯합니다.”



“9월 19일이 아내 생일이어서 뭘가 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지금처럼 대화도 많이 하고 친구처럼 의지가 되는 부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은수에게는 새로운 체험을, 아내에게는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싶었던 이주형 선임은 쑥쑥 자라는 딸에게 아빠 회사를 자랑하게 됐다며 참여 사유와 소감을 밝힌다. 그리고 늘 곁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아내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9월 19일이 아내 생일이어서 뭘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지금처럼 대화도 많이 하고 친구처럼 의지가 되는 부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털털한 성격의 여자와 꼼꼼하고 섬세한 남자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마주 보고 웃는 모습이 오누이처럼 닮아 있는 것을 보니 이 동갑내기 부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이끌림이 작용한 인연의 결과인 듯싶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이들 부부의 목표는 둘째를 갖는 것. 아내가 육아로 힘들어했던 만큼 큰 결심을 해줘 너무 고맙다는 남편은 올 하반기 즐그 둘째가 생기기 전에 여행을 다녀 올 계획이다. 서로 공감대가 있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가족의 바람을 전하며 이주형 선임은 앞으로 아내를 위해 ‘fully, gently, perfectly support’를 약속했다. 그 약속을 끝으로 이 사랑스러운 가족과의 만남을 마무리했다.



이수 디크라фт

북아트 작품 판매 및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수강생을 위한 북아트 전문 강좌, 아마추어를 위한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주소 진주시 비봉로 33번길 12 전화 010-5051-8419 참고 cafe.daum.net/E-su-Craft

청탁금지법 시행 **KAI,** 글로벌 윤리기업으로 우뚝 선다

지난 9월 28일,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 우리 회사는 법 시행 전부터 홍보와 교육 그리고 시스템 마련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숙지하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리 김희정

청탁금지법 제안에서 시행까지

201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터져 나왔다. 일명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사건. 현직 검사가 스폰서로부터 고액의 승용차 등 거액의 금품을 받아온 것이 드러났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온 국민은 검사의 처벌에 집중했다. 명백한 공직자 비리 사건으로 그에 따른 법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 2011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었다. 내연 관계의 변호사로부터 고급 자동차와 명품백 등을 받은 '벤츠 여검사' 사건도 같은 이유로 처벌을 피했다. 당시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웠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커던 만큼 이 법은 제정안 발표 때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현재 확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27일 입법예고되었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5월 9일 시행령이 공포된 데 이어 지난 9월 28일 시행되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청탁금지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에 적용된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기관의 장과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자인(민간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바로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청탁하는 행위만으로도 위법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식대·경조사비 등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도 정해졌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때 1인당 접대 비용은 인원 수로 나눠 상한 여부를 따진다.

청탁금지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준법지원인 윤웅중 상무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 결정 및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하고 관리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우리 회사는 2015년 2월 5일 이사회 결의로 윤웅중 상무(법무지원실장)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했다.

준법지원인의 가장 큰 역할은 회사와 임직원이 법률에 대한 자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이를 위해 준법지원인은 윤리준법교육과 상담, 현업부서 업무의 리스크 점검, 준법 지원 및 준법 점검 체계 등에 대한 유효성 평가와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회사 업무 수행 중 준법 생활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윤웅중 상무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의 준법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포부다. 윤웅중 상무는 청탁금지법에 관해 궁금하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문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경조사비에는 경조사 목적으로 보내는 화환이 포함되며, 경조사 목적이 아닌 승진 선물 등으로 화환을 보낸다면 5만원의 선물 기준이 적용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KAI, 청탁금지법 Help Desk 운영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온 국민의 관심이 '김영란법'에 몰렸다. 각 기관에서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법률 적용 사례를 묻는 글이 폭주 했다.

교육과 매뉴얼로 준법 생활화가 목표

9월 28일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우리 회사도 청탁금지법 Help Desk를 설치하고 특별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에 나섰다.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지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해 회사나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탁금지법에 관해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은 Q&A 양식을 활용하거나 간단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질의 내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되고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Q&A 양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질문 중 전사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내용은 Q&A 게시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안찬식 변호사, 안영은 변호사, 백용하 부장검사가 강사로 초빙되었고, 하성용 사장을 비롯한 610여 명의 임직원이 교육에 참여했다.

청탁금지법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 지침 가이드도 마련되었다. 향후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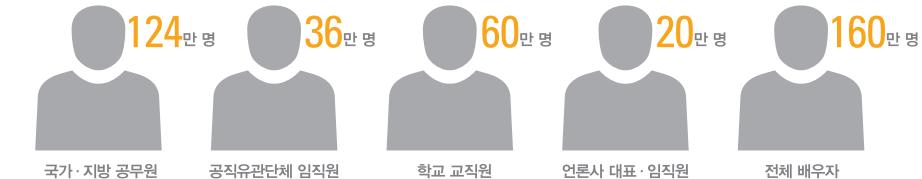
청탁금지법 한눈에 보기

핵심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금품 수수 금지
 - 위반 시 • 가액 2배~5배 / 1,000만원~3,000만원 과태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대상

- 공직자,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
- 약 400만 명 이상 추산



허용 상한선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의 경우 시행령[별표 1]이 정한 한도 기준

- 식사대접 : 3만원 –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선물(기념품) : 5만원 – 금전,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 경조사비 : 10만원 – 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



* 청탁 목적의 식사, 선물, 경조사 비용 지출은 10원도 안 됨

공직자의 외부 강의 사례금(강사료) 상한액

-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 장관급 이상 : 50만원
 - 차관급(기관장) : 40만원
 - 4급 이상(임원) : 30만원
 - 5급 이하(그외 직원) : 20만원

* 1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로 제한

-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 100만원
 - 공공기관 위원으로 공무 관련 강의 : 100만원

*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사례금(강사료) 수수 제한에서 제외

'청탁금지법 KAI식 길라잡이'

금품, 적용 대상 기관 해당 여부, 적용 대상자,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Mock-UP(선물), 공식적인 행사, 직무 관련성, 동일인 1회 등의 내용으로 Koffice-개시판-일림방-준법지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생일 파티’ 이벤트로 직장생활의 활력 얻어요!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고 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 이 바로 직장 동료와의 관계다. 매일 8시간 이상을 함께 생활하면서도 서로에게 무심한 팀이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일이 우선이지 사람 관계가 뭐 그리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업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 그리고 그 ‘관계’에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 이벤트, 소소한 대화, 눈 맞춤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을 원활히 하는 소통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최종조립생산팀4직의 ‘생일 파티’ 이벤트는 쉽지만 효과가 큰 소통법의 좋은 예다. 부서원의 생일날 아침 케이크를 준비해 함께 축하하는 이들만의 작

2016년 3/4분기 조직 활성화 모범 사례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만나 팀을 이루고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조직문화 역시 시대의 흐름과 조직 내외의 환경적 요구에 맞춰 변화해야 하기에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과제를 원활히 풀어가며 조직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꼽힌 네 팀이 있으니 최종조립생산팀4직, 품질기획팀, 조립생산팀3직, 향전SW팀이다. 지속적인 소통과 배려로 최강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이들의 조직 활성화 사례에 주목하자.

정리 문석

지난 달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45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회식 문화’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직장인 61.4%가 ‘회식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팀워크를 강화하고 팀원 간 활기찬 분위기를 이끌어야 하는 회식이 대다수의 직장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업무의 연장인 것이다. 이런 회식 문화를 보다 활기 넘치고 알차게 바꾸고자 품질기획팀은 지난 6월부터 ‘품질기획 회식문화 5계명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팀원 모두가 즐겁고 알찬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회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애고, 진정한 회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다. 품질기획팀이 정한 5계명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질기획 회식 문화 5계명

첫째, 회식 날짜는 1주일 전에 공지한다. 갑작스러운 날짜 공지로 부서원 개인 스케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식 활동과 저녁 메뉴에 대한 의견을 미리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자율 참석을 원칙으로 하는 배려는 덤이다. **둘째, 회식은 다수가 원하는 곳으로 정한다.** 공지 후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중 다수 의견을 따르되,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수평적인 회식을 진행한다. **셋째, 동료나 후배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지 않는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직원을 위해 지나친 술 문화는 지양한다. **넷째, 회식은 소통이다.** ‘둘만의 데이트’라는 이름 아래, 팀장이 팀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찾아가 담소를 나누는 기회를 갖는다. 회식 장소에서 못 다 한 팀원의 업무 동향 및 개인 경조사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마지막 **다섯째, 1차는 소통의 장으로, 2차는 체력 단련의 장으로 진행한다.** 1차에서는 식사와 대화를 나누고 2차는 다양한 생활 스포츠를 진행해 체력을 단련하는 시간을 갖는다.

품질기획팀은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지난 6월부터 회식을 진행, 모두가 즐거운 회식 문화를 실현하고 있다. 팀 내 건전한 회식 문화를 정착해 수평적 분위기를 만들고, 단단한 팀워크를 유지해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소통이 ‘주(主)’가 되는 회식, 소속감을 고취하는 회식, 매번 똑같은 회식에 지쳤다면 품질기획팀의 회식 문화 5계명을 따라보자.

건전한 회식 문화, 우리가 만든다

이병찬 사원 ● 저는 술을 못하는 체질이라 대학 시절에도 선배들과의 술자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 회식 자리로 어떻게 버텨내나 걱정을 안고 있었죠. 하지만 입사 후 첫 회식 때 팀장님께서 “강요하는 문화가 아니니 주량만큼만 드세요”라고 말씀해주셔서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현재까지 적당한 음주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나누며 즐거운 회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남식 전문 ● 그동안 후배와의 대화는 업무에 관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 이야기로 시작해 일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둘만의 데이트’를 진행하며 업무는 물론 사소한 일상까지 나누다 보니 부하직원이 아닌 막내 동생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둘만의 데이트를 꾸준히 유지해 밝고 활기찬 팀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S본부 품질총괄
품질기획팀





**생산본부
조립생산실
조립생산팀3직**

스포츠는 팀워크의 결정체다

빠르게 팀워크를 다지고 한마음 한뜻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연 스포츠다. 특히 남자들의 세계에서 공통 관심 종목을 함께 즐기는 것은 모르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친구로 만들 만큼 영향력이 크다. 지난 9월 7일 조립생산팀3직은 팀워크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야구 시합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파이팅을 다졌다. 특히 이번 야구 시합은 그 의미가 남다른데,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F-15 조원들이 편입된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다. 자연스레 서로를 알아가고 완벽한 팀워크를 다지는 취지로, 한바탕 함께 뛰고 응원하며 서로의 거리를 성큼 좁힌 시간이었다.

모처럼 사내 운동장에서 야구 시합을 한 38명의

팀원들은 경기를 하며 업무로 지친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목청껏 응원하고 서로 격려 하며 직원 간 일체감을 높였으며, 게임이 끝나고 마련한 대화의 자리를 통해 평소 하기 힘든 고충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직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결속시켜주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체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한 공동 목표 의식을 갖게 하고 개인보다는 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스포츠 한 게임. 조립생산팀3직처럼 공동 관심 스포츠를 찾아 팀빌딩을 계획해 보면 어떨까.



황의영 팀장 ●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 유쾌, 상쾌, 통쾌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즐겁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좋은 추억을 남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영훈 기술원 ● 팀 경기라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 게임에 임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운동을 하니 정이 새록새록 돋는다고 할까요. 팀워크가 끈끈해진 기분입니다.

정태훈 조장 ● 같은 직이지만 서로 다른 사업을 맡아 일하는 관계로 교류나 유대 관계가 부족했는데, 이번 활동으로 소통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친목도 쌓고 조직력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직장 ● 시작도 끝도 모두 성공적인 경기를 진행해 뿌듯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층 더 밝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을 거 같아 기대도 됩니다. 지금의 기세를 모아 서로 긴밀한 협력 아래 T-50을 완벽하게 마무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져봅니다.

가족과 회사를 하나 되게 한 특별한 마라톤

최근 가족 간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통해 친밀감

을 높이는 기업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가정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업무 효율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항공전자실의 사례는 단연 최고의 가족 친화 활동이자 조직에 힘을 더하는 우수 사례다.

항공전자실은 가족과 함께 매년 봄과 가을에 '진주남강마라톤대회'와 '사천노을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며 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토요일 저녁, '사천노을마라톤대회'에 단체팀으로 참가한 항공전자실 엔지니어와 그 가족 144명은 초기를 시원한 저녁 운동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노을마라톤대회는 각자의 실력에 맞게 코스를 정해 걷고 뛰며 노을을 즐기는 낭만적인 대회로, 팀과 그 가족에게 좋은 호응을 얻어 꾸준히 참가하

고 있다.

특히 이번 마라톤대회는 KFX사업을 위해 한국에 파견된 롯데마린스의 TA 및 TA 가족 9명이 함께 그 의미를 더했다. TA와 그 가족은 항공전자실의 조직문화를 자연스럽게 체감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사천의 풍경을 감상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했다.

이날 팀원의 가족들은 봄 이후 오랜만에 만나 안부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원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한 방향을 향해 함께 뛰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됐다. 행사로 주관한 항전SW팀은 원활한 진행으로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 모범 사례 팀으로 선정됐다. 직원을 넘어 가족까지 생각하는 참여의 장, 이로써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마라톤 대회 참가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다.

김은진 선임연구원(항전체계팀) ● 올해로 항전 단체 마라톤 참여가 다섯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누구는 기록 단축을 위해, 누구는 삼삼오오 모여 함께 페이스를 맞추며, 누구는 자신을 스쳐가는 선후배 동료를 멋지게 응원하며, 누구는 뒤쳐지는 동료를 독려하고 끌어안으며 열심히 달렸습니다. 회사를 떠나 직급을 막론하고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승자·패자가 존재하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원주를 축하하고, 모두가 승자인 운동을 함께 해서 더욱 매력적인 행사인 것 같습니다.

황철원 연구원(항전SW팀) ● 첫 마라톤이 만큼 기록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앞만 보고 열심히 뛰었는데, 달리다 보니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더군요. 그때 선임님이 저에게 뛰어와 말했습니다. "기록도 좋지만 경치를 보고, 실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뛰면 덜 힘들다"고요. 노을이 내려앉은 길을 팀원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뛰니 거짓말 같이 힘이 솟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가 아닌 144명이 함께 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말이죠. 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만나요~

조광재 책임연구원(KFX항전체계팀) ● 이번 여름은 유난히 날씨가 더워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딸과 함께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제 마음을 하늘이 알았는지 마라톤이 개최되는 주초부터 날씨가 서서히 풀리더니 대회 당일에는 서늘한 바람까지 불어 최적의 날씨에서 달리 수 있었답니다. 딸과 함께 참여하고 다른 가족 분들과 인사 나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정익개발본부
항공전자실
항전SW팀**



오늘은 내가 홈 셰프!

KAI인이여, 앞치마를 둘러라

바야흐로 '맛 전쟁'이라 불릴 만큼 음식에 대한 열풍이 거세다. TV를 켜면 어느 채널에서건 요리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다양한 건강식품을 비롯해 몸에 좋은 먹을거리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이런 흐름에 맞춰 요즘 '홈 셰프'를 자처하는 내식(内食) 인구도 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혼밥족(혼자 밥 먹는 사람)이라면? 또는 바쁜 일상으로 외식에만 의지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요리에 소질이 없어 주방 앞에 서기 두려운 KAI 임직원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디너앤런(Dinner&Learn)'의 문을 두드려보자. 집 밥이 그리운 당신을 위해 먹방, 쿡방 못지않은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글 문석



KAI에 부는 앞치맛바람

우리 회사는 2014년부터 '디너앤런'을 열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바리스타 실습, 케이크 만들기 등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디저트부터 베이킹 노하우까지, 재미와 실속을 고루 갖춘 체험이 그것이다. 이번 쿠킹데이는 그 일환으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요리를 직접 배우고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9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총 8회에 걸쳐 우리 회사 복지동 식당에서 진행하며, 강의는 웰스토리의 내부 요리사가 맡고

있다. 요리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짧은 시간을 투자해 정확한 요리 방법을 배우고 싶은 임직원이라면 누구라도 환영이다. 그동안 소고기 전골(9월 1일), 닭볶음탕(9월 8일), 비빔밥(9월 22일) 강습을 진행했는데, 근무 외 시간인 저녁 교육임에도 신청 및 참여도는 최고치다.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만족'과 '매우 만족'으로 답한 직원이 98%에 달했다.

지난 9월 1일 소고기전골(초급 과정) 강습을 마친 한 참가자는 "30년 동안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었는데, 용기를 내 도전해본 결과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오늘 배운 요리로 아내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독거노인(?)에게 요리의 세계를 알게 해준 알찬 시간이었다. 열심히 복습해

더 맛있게 만들어 먹을 예정이며, 응용 버전으로 다른 전골 요리도 만들어볼 생각"이라며 강습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차별화된 커리큘럼, 퀄리티 높은 교육 내용

이러한 결과는 대개의 일회성 쿠킹 클래스와는 차별화된 디너앤런의 커리큘럼에 있다. 우선 디너앤런은 참여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초급과 중급으로 클래스를 구분한다. 나이도를 선택할 수 있으나 수준에 맞게 신청할 수 있고, 학습 효과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한식, 중식, 양식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전골부터 잔치 음식, 짬 요리까지 메뉴를 미리 공지하므로 신중한 취사선택이 가능하다. 더불어 좋은 식재료 고르는 법, 올바른 음식 보관법, 요리 별 식재료 손질법 등 알찬 정보도 함께 제공해 교

육의 질을 높였다. 모든 체험자에게 전용으로 제공되는 조리 도구도 매력적이다. 체험자는 잠시나마 자신만의 작은 주방에서 직접 칼을 써서 재료를 다듬고 프라이팬을 이용하는 등 혼자서 요리하는 느낌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또 요리가 끝나면 체험자들이 만든 요리를 한 테이블에 모아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작품 감상' 시간도 특징이다. 플레이팅(담음새)도 요리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보기 좋게 음식을 담는 법을 강사가 지도하며 의미 있는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디너앤런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밥 한 번 안 해 본 요리 초보자도,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고 싶은 중급 실력자도 환영이다. 쉬운 음식부터 배워가며 만들어 먹는 요리의 세계는 KAI인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나로우주센터 파견 사무소 한국형발사체 총조립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

2014년 1월 우리 회사는 한국형발사체(KSLV-II) 총조립 업체로 선정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형발사체 체계 총조립사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나로호를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체 기술 자립을 위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회사는 발사체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열한 명의 최정예 전문가를 투입,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체 총조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들을 만났다.

기획 배화윤 차장 글 문석 사진 안종근



“우주 발사체
실용화에 대비하고
향후 발사체 서비스
업체로
성장하겠다는
회사의 목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형발사체 체계 총조립을 우리 손으로

나로우주센터 파견 사무소는 항우연 주관으로 진행 중인 한국형발사체 사업에 체계 총조립을 맡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발사체 1, 2, 3단의 시스템 총조립을 위한 상세 설계와 조립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가 한국형발사체 사업에 참여한 것은 2014년 초로, 그동안은 설계 업무만 대전 항우연 건물에서 진행해왔다. 그러던 것이 지난 8월부터 한국형발사체 모델 중 시험발사체 EM(개발모델)의 조립 작업이 착수되면서 나로우주센터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 7월 말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공장에 먼지가 풀풀 날리고, 여기저기 공사가 진행되는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항우연과 현장 인력 및 수공구/비품 계약이 불과 1개월 전에 완료되어, 긴급하게 수공구/비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발사체 조립 작업이 가능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다행히 한국형발사체 1차 사업 중 확보된 수공구가 상당수 있었고,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작업 준비를 빨리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흥에서 상주하며 작업을 수행한 지 2개월.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유원균 부장은 본사의 신속한 지원과 베테랑 전문가들이 손발을 맞춘 결과 순조롭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의 각오 한마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우리의 기술력을 총 집합한 체계 조립으로 한국형발사체 개발 성공에 기여하겠습니다.



KAI 최고의 정예요원이 뭉쳤다

작업자 여섯 명, 검사원 한 명, 엔지니어 네 명, 총 열한 명이라는 인원으로만 봤을 때 나로우주센터 사무소의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기술진답게 이들의 업무 역량은 최고라 자부할 만하다. 그도 그럴 것이 20년 이상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지닌 인원이 여섯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완제품 조립을 위해 각각의 부품을 받으면 정상, 비정상이 바로 파악됩니다. 오랜 노하우를 쌓은 결과이지요. 현재 완벽한 작업 진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매 단계마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워낙 경험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덕에 엔지니어에게 개선 사항까지 조언해주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팀워크다. 나로우주센터 사무소는 매일 아침 조회를 통해 그날의 수행 업무를 공유하고 있으며 불편 사항, 건의 사항은 여과 없이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부서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개소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손발이 척척 맞는 이들의 팀워크는 수년을 함께 지낸 어느 팀 못지않다. 신규 사업에 도전한다는 설렘과 각오가 사무소의 분위기를 한층 고취시키

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소의 구성원 모두 자발적 지원을 통해 발사체 총조립에 참여했다.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하는 발사체 사업에 도전하고픈 개개인이 모여 새로운 신화를 이루겠다는 각오로 뭉친 것이다. 회사의 발전을 넘어 국가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이 사무소를 열정과 패기 넘치는 분위기로 이끈 원동력이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차게 전진!

“구성원 모두 본사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종 조립에 대한 매력을 느껴 지원했습니다. 전투기나 훈련기는 길이가 20m를 넘지 않고, 높이도 5m 미만인데 비해 발사체는 직경 3.5m, 총 길이 47m라는 종후 장대한 크기지요.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부품을 조립하기 위한 개념 설계를 하고 그것이 실제로 조립돼 발사대로 옮기는 업무까지

해야 하기에 기대감과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우주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천진효 전문의 말처럼 독자

적인 발사체 개발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달 한국형발사체 75톤급 액체로켓엔진이 임무 수행 시간인 143초를 넘어 145초 연속 연소시험에 성공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발사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이 시간적 요구 조건을 만족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진행도 순조로울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항공 분야를 평정한 우리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은 우주와 위성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성공리에 마쳐 우주 발사체 실용화에 대비하고 향후 발사체 서비스 업체로 성장하겠다는 회사의 목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의 발전은 물론, 우주 강국 조기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발사체 업무가 이제 시작 단계라 아직은 인지도가 낮지만, 내년 연말 시험발사체 FM(2단형 로켓 비행 모델)이 발사될 때쯤이면 온 나라가 떠들썩 할 거라 자신하는 구성원들. 이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 기술로 해낸 한국형 로켓이 불꽃을 뿜으며 우주로 향하는 날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회사의 발전을 넘어 국가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이 사무소를 열정과 패기 넘치는 분위기로 이끈 원동력이었다.

우리의 각오 한마디



천진호 전문기술



이재렬 전문기술



이재렬 전문기술



박주영 수석기술



양진현 전문기술



양철민 책임연구원



김형재 수석연구원



최홍국 전문기술



조영래 책임연구원



이병대 수석기술



축준식 기술

그동안 이룩해온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 한뜻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예로 둘둘 끌친 단단한 조직, 나로우주센터 사무소를 응원해주시십시오.

퇴직 6년을 남겨두고 퇴직 전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과 성과를 남기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구성원 모두 서로 도우며 협업하고 솔선수범하고 있어 든든합니다.

좋은 사람을 옆에 두면 좋은 일 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멋진 일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지금처럼 훌륭한 팀워크를 유지하며 발사체 성공을 품겠습니다.

1차는 외국 기업과 공동으로 작업했지만 이번 2차는 자체 개발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중입니다. 모든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만큼 기대도 커 힘들이 넘칩니다.

한국형발사체사업의 품질 보증을 원세히 해,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모두 파이팅합시다!

한국 최초라는 자부심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점검, 열정과 투지로 전력을 다하는 나로우주센터 사무소의 내일을 지켜봐주십시오.

100%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에 우리의 위성이 실려 발사되는 모습을 그리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마음은 조금 하지만 차근차근 한 단계씩 벌어가겠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또 하나의 기정을 꾸린 기분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하고 있어, 좋은 성과도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좋은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KAI의 이름을 걸고 초심, 중심, 뒷심을 품고 노력하는 막내가 되겠습니다.

배울 점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늘 행거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열심히, 친절히 일하는 노력하는 막내가 되겠습니다.

이 가을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잔 마시고 싶은 사람, 연예인 중에 누가 있을까. 때론 옆집 언니 같이 포근하고 때론 귀여운 여동생처럼 편안한 연예인, 단연 ‘박경림’이 아닐까. 부침 심한 방송 연예계에서 ‘마당별’, ‘인맥의 여왕’으로 통할 만큼 박경림은 격이 없는 친근함을 주는 방송인이다. 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시너지를 내는 방송인이기도 하다. 가을의 향기가 스멀스멀 느껴지던 날, 박경림과 차 한잔을 마주하며 앉았다.

글 허주희 사진 제공 코엔티엔



방송인 박경림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남기는 것이 내 힘의 원천



가을 햇살이 비추는 창가, 테이블에 놓인 찻잔 위로 커피 향이 기분 좋게 퍼진다. 인터뷰어와 인터뷰어로 처음 만났지만 박경림과 주거나 받거나 대화를 하니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하다. 그의 긍정 에너지와 활기가 전달되는 느낌이다. 최근 박경림은 3년간 진행했던 MBC FM4U ‘두시의 데이트’의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2013년 6월부터 ‘두시의 데이트’ DJ로 활약했던 박경림은 특유의 재치와 입담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청취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도 소중했다”는 그녀는 “언제 까지나 두시의 데이트와 함께 했던 기억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하차 소감부터 전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누구와도 화합 이뤄

원래부터 방송 분야는 외모가 잘 생기고 소위 ‘잘 난’ 사람들이 승승장구 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입견을 깬 대표적인 방송인이 박경림이다. 박경림은 고등학생 때 라디오 방송으로 데뷔해 일찌감치 명성과 인기를 누렸다. 외모나 목소리, 어느 것 하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으나 특유의 개성과 예의 바른 성실함, 친화력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경림은 단점으로 치부된 자신의 외적인 부분을 재능과 인성, 성실함으로 무장해 볼식시켰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평범함은 친근함으로 바꿔고 대중들의 공감을 얻으며 높은 인기를 얻었다. “누군가를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살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웃고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웃을 일만 있는 건 아니라 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꿈을 꾸다가 우연한 기회에 데뷔를 했기에 막상 방송계에 왔을 때 직속 선배, 즉 저의 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제 선배가 될 수 있었고,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뿌리가 없다는 것은 외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

다. 하지만 박경림은 “감사하게도 이문세 선배님이 데뷔를 도와주셨고 김국진, 박수홍, 이경규, 이경실 선배님 등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작품은 안 남아도 사람은 남아야 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방송을 통해 긍정의 시너지 전파하는 게 꿈

어릴 때는 오프라 유프리가 되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가졌던 박경림은 조금씩 나이를 먹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노력은 기본이며 큰 욕심을 갖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래도록 방송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또 오랜 방송 활동으로 훈련되고 체득한 방법이자 화합을 위한 자신만의 비결로 상대에게 화내기 전에 ‘그 사람에게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를 먼저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이해 못할 일이 없고, 이는 자신이 화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니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설명이다.

“방송인으로서 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제 마인드를 먼저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모든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잘한다면 그래서 가정이 회복하면, 모든 인간관계도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즐거움을 주고, 공감을 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박경림. 앞으로의 방송 생활과 인간관계 모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힘차게 그리고 성실하게 걸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를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박경림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누구와도 화합하는 성향은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타고나야 할까,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일까. 박경림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이웃과 가족 같이 지냈던 것이 현재 저의 재산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늘 저에게 ‘누구라도 눈이 마주치면 인사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러한 가르침이 기본적인 인성을 형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성향 자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선입견도 없어요. 저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는데 제가 누구에게 선입견을 갖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가 아니라,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가 궁금하죠.”



“KAI의 업무 역시 여렷이 힘을 모아 성과를 내는 공동 작업인 만큼 비빔밥처럼 잘 어우러지는 기업문화를 통해 최상의 시너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KAI의 멋진 활약을 기대할게요!”

박경림은 KAI 임직원들 역시 직장생활 속 대인관계에 있어 먼저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면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줘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직장인에게 목표 달성과 성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도 그렇지만 KAI의 업무 역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화합이 필요하겠죠. 저는 소통과 융합을 위해 ‘사람을 먼저 알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충실히 애정을 갖고 나니 성과가 덤으로 따라왔거든요. KAI의 업무 역시 여렷이 힘을 모아 성과를 내는 공동 작업인 만큼 비빔밥처럼 잘 어우러지는 기업문화를 통해 최상의 시너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KAI의 멋진 활약을 기대할게요!”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 기체생산1팀 박일권 주임

기체생산기술2팀 유재훈 사원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 방법까지 도출하는 재훈이 형, 항상 고맙습니다. 형과 같은 엔지니어들만 있다면 우리 회사의 비전 달성을 충분히 이루어고 남는다는 확신이 들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현장과 소통하는 엔지니어가 되어주세요!

✉ KFX기체해석팀 김현태 사원

헬기추진계통팀 김경진 과장
제가 고민과 걱정에 빠져있을 때 아낌없는 조언과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시고, 마음의 양식까지 한 가득 선물해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수님과 규빈이와 함께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파이팅!

✉ 회전익LRU구매팀 강상수 과장

구매기획팀 송권수 사원
한때 같은 부서에 일했던 송권수 사원님! 팀을 옮기고 생각해보니 함께 있을 때 많이 도와주지 못한 거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사보를 통해 그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요. 언제나 밝게, 파이팅 넘치는 모습 잊지 마세요~

✉ 훈련체계운영팀 이상재 선임

사회공헌팀 구관혁 부장
사람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일깨워주시고, 일을 대하는 태도도 조언해주시는 구 부장님은 제가 닮고 싶은 좋은 멘토입니다. 요즘은 나눔봉사단 사무국장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부장님께 추석을 맞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름달처럼 가득 찬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개발혁신팀 홍금석 차장

경영혁신팀 황성철 차장
혁신팀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황 차장! 혁신 업무에서 무언가 필요하면 항상 그 자리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줘서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네. 언제나 밝고 명랑한 모습 계속 보여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 기체설계팀 허성화 선임

사회공헌팀 박미선 과장
9월 24일, 과장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소 에비에이션캠프를 준비할 때 엄마처럼, 누이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9월 마지막 주는 박 과장님의 빈자리로 허전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기원합니다.

GIFT BOX

—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Fly Together〉는 KAI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자연에 소개할만한 KAI인, 팀워크가 좋은 부서,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고 싶은 동료, 특별한 사연의 가족 등을 추천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추천이 함께 소통하는 〈Fly Together〉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KAI Family'의 목공 체험이 좋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관심이 있는 활동이라 더욱 주목하며 읽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 'World Today'의 호주 정보도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강기영 조장(기체생산팀2직)

'생생현장탐방' 기사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사실 사무실 업무로는 현장에서 고객이 어떻게 느끼고 활용하는지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고객이 우리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느끼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현장 사무소의 활동을 지켜보며 많은 사우들이 힘을 합쳐 명품 수리온을 운영하는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꼭 8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하여 자축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영 사원(회전의LRU구매팀)

KAI의 사업 진행 상황과 미래사업에 대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KAI에서 진행되었던 행사, KAI 직원들의 일상 등 상세한 내용과 인터뷰를 통해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평소 APT 사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9월호에 T-50A와 경쟁 기종 분석에 관한 글을 보면서 APT사업을 위한 임직원 분들의 노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KAI의 미래의 먹거리 중 하나인 APT사업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안교진 연구원(KFX기체해석팀)

'황금 알을 낳는 최후에 시장'을 읽고 우리 KAI가 APT사업 수주를 기필코 달성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기업문화 시리즈-창의성' 주제도 매우 좋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보 내용이 항상 다채로워 좋습니다.

이창희 조장(기체생산팀3직)

항공 전문 지식을 알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World Today' 코너에서 호주가 소개되었는데, 이번뿐 아니라 매월 각 나라마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유익합니다.

윤영진 사원(조립생산기술팀)

〈Fly Together〉를 읽고난 소감과 독자 퀴즈의 정답을 엽서 또는 이메일(boram@koreaero.com)로 보내주세요. 내용을 보내준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본부별 사내기자단

전략기획본부 신사업전략팀 박주호 사원 055-851-0852
재경총괄 지금팀 최준형 사원 055-851-9711
국내사업본부 사업관리3팀 정종원 과장 055-851-6175
해외사업본부 수출기획팀 이유리 과장 055-851-9583
구매본부 구매기획팀 김민준 사원 055-851-9097
개발사업관리본부 고정익개발사업관리팀 김미영 사원 055-851-1578
고정익개발본부 KT-체계팀 손영호 선임 055-851-9956
회전익개발본부 LAH체계중합팀 노나영 연구원 055-851-9140
대전연구센터 우주시업팀 박용현 사원 055-851-6737
생산본부 생산계획팀 장재완 차장 055-851-9353
CS본부 운영기획팀 안재운 과장 055-851-2867
품질총괄 품질기획팀 이창영 사원 055-851-9495

반응형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PC나 스마트폰에 아래 주소를 KAI 사보로 연결됩니다.
kaiwebzine.com

사보 〈FLY Together〉 웹진 오픈 축하 이벤트

웹진에 댓글 달고 상품 받으세요! 편리하고 재미있게 웹진으로 사보 〈FLY Together〉를 보셨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음료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퀴즈

빈칸을 채워주세요



Q 우리 회사는 2014년부터 'OOOO'를 열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바리스타 실습, 케이크 만들기 등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디저트부터 베이킹 노하우까지. 재미와 실속을 고루 갖춘 체험이 그것이다.
(‘이야기 한마당’ 중에서)

Congratulations!



WEDDING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8. 27

서정섭 자재기획팀 사원

9. 3

최현석 KFX항전체계팀 선임

9. 24

박성민 KFX전장설계팀 선임

9. 24

권순장 회전익생산기술팀 사원

9. 24

박미선 사회공헌팀 과장

9. 24

문대환 비행제어팀 사원

9. 2

이해일 자금팀 사원 / 득녀

9. 23

문인호 위성체계팀 선임 / 득녀

9. 24

박민석 KFX항전체계팀 선임 / 득남

9. 2

김구슬 구주사업관리팀 과장 / 득남

9. 2

윤인권 기체생산2팀2직 주임 / 득남

9. 4

송승진 회전익LRU구매팀 사원 / 득남

9. 5

김병곤 원가관리팀 과장 / 득남

9. 5

이경욱 비행계측팀 연구원 / 득남

9. 7

이현철 kfx전장설계팀 책임 / 득녀

9. 7

이동주 회전의사업운영팀 차장 / 득남(쌍둥이)

9. 10

전병권 고정익운영기술팀 과장 / 득남

9. 12

김명훈 안전환경팀 물리치료사 / 득녀

9. 13

윤성원 사업관리팀 과장 / 득녀

9. 17

김민우 GSE개발팀 선임 / 득녀

9. 18

김성문 회전익운영기술팀 과장 / 득남

